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197~235 https://doi.org/10.24987/SNUACAR.2024.4.14.1.197

쿠르드 지배가문과 산간성채: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사 재편*

최남섭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연구조교수

이 연구는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사를 거점 산성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도다. 자그로스와 타우루스산맥에서 살던 쿠르드인들은 지배권을 행사하는 혈족 가문으로 성장했으며, 정치와 군사의 거점이던 산간의 성채에서 다양한 무슬림 제국과 접촉하며 역사에 이름을 남겼다. 하지만 이런 가문들은 스스로 과시할 만한 연대기를 편찬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그들의 역사 대부분은 외부인들이 남긴 파편적 기록을 통해 이해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연구자는 쿠르드 가문 중에 예외적으로 많은 문헌기록이 전하는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 역사를 거점 산성의 확보, 활용, 포기를 중심으로 각각 지배세력의 구축, 유지, 상실기로 나누어 검토했다. 이를 위해, 13~15세기에 이 가문의 군주들이 세력을 확장하며 계곡과 언덕의 산성을 점령한 순서와 배경을 살폈다. 그리고 16세기 오스만조와 사파비조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르달란 군주들이 네 산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생존을 모색하던 방식과 의미를 확인했다. 또한, 17~19세기에 이 가문이 타의적으로 네 산성을 모두 포기한 이후 쇠락을 거듭하다가, 최종적으로 카자르조에 지배권을 상실하고 몰락한 과정을 살폈다. 이러한 포괄적 검토를 바탕으로 전근대 쿠르드 지배가문들이 거대 제국들에 저항과 복속을 거듭한 역사적 단면을 확인해 보고자 했다.

주제어 쿠르드 지배가문, 아르달란 가문, 성채, 입지 조건과 정복 순서, 전략적 활용과 생존, 포기와 자치권 상실

I. 서론

쿠르드인들은 자그로스와 타우루스산맥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산간지대에서 거주하던 산악인 집단에서 유래했다. 그들은 험준한 계곡과 언덕에 흩어져 살던 자급적인 사람들이었지만, 일부 집단은 지배권을 행사하고 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부계 중심의 혈족 가문(Khāndān)을 이루기도 했다. 이슬람 시대에 들어와 이런 가문들은 정복 활동을 펼치던 무슬림 제국들과 접촉하며 특정 이름을 가

* 이 성과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No. RS-2023-00244493)의 지원과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의 도움으로 수행했으며, 202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연구 국제학술행사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완한 연구다.

진 세력으로 역사에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외부세계에 노출된 장소 대부분은 정치와 군사의 거점이던 산간의 성채(Qal'e)였다. 당시 그들이 확보한 다수의 산성은 관할지를 통치하기 위한 중심이었고, 외부 세력과 맞설 때는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전장이자 피난처였다. 이처럼 여러 의미를 가진 산간의 성채는 가문의 운명과 함께 한 장소로서 전근대 쿠르드 지배가문들이 처한 상황을 대변하는 역사적 단서로 주목해야 한다.

하지만 그들이 장기간 세력을 유지한 경우는 드물었다. 이 때문에 특정 가문이 사용한 거점 산성을 통시적으로 살피기 어렵다. 이런 면에서 아르달란 가문(Khāndān-e Ardalān)이 이례적이다. 이 가문은 쿠르드인의 첫 번째 역사서로 평가하는 비틀리시(Bitlīsī, 1543~1603/4 CE)[1]의 『샤라프나메(*Sharaf-nāme*)』(1597)에 술탄국으로 성장하지는 못했지만 군주의 이름으로 후트바(Khuṭba)를 개최하고 주화(Seke)를 발행한 첫 번째 자치가문으로 이름을 올렸다(Bitlīsī, 1998: 82). 그리고 샤리프 카지(Sharīf Qāẓī, 1739~? CE),[2] 호스로우(Khosrow, 생몰미상),[3] 마스투레 아르달란(Mastūre Ardalān, 1805~1848 CE),[4] 사난다지(Sanandajī, 1858~1921 CE),[5] 코르데스타니(Kordestānī),[6] 마르두흐(Mardūkh, 1877~1975 CE)[7]처럼 '아르달란의 역사가들(Mūrkhān-e Ardalān)'이라고 불리는 가문사가들이 20세기까지 이어진 아르달란 군

1 본명은 Sharaf al-Din Khān ibn Shams al-Din ibn Sharaf Beg Bitlīsī(혹은, Bedlīsī)이다. 현재 이란 아라크(Arak) 인근의 가름루드(Garmrūd)라는 마을에서 태어났고, 사파비조의 타흐마스브 1세와 카즈빈(Qazvin) 궁정에서 교육받았으며, 가장 이른 시기에 쿠르드인의 역사를 저술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이 책을 쓴 페르시아어에 맞추어 전사했다.

2 본명은 Mollā Moḥammad Sharīf Qāẓī ibn Mollā Moṣṭafā Sheīkh al-Eslām이며, 1800년에 *Zobde al-Tavārīkh*라는 역사를 편찬했다(Sharī Qāẓī, 2000: 7).

3 본명은 Khosrow ibn Moḥammad ibn Manūchehr Ardalān이며, 1833년에 *Lob-e Tavārīkh*을 편찬했다(Khosrow, 1914: Alef).

4 본명이 Māh Sharaf Khānom이고, 보통 '아르달란의 순결한 여인'을 뜻하는 Mastūre Ardalān, 혹은 Mastūre라는 필명으로 불린다. 1845년에 *Tārīkh-e Ardalān*을 편찬했고, 샤리프 카지의 저서를 교정한 세계 최초의 여성 역사가로 알려져 있다.

5 본명은 Mīrzā Shokrollah Sanandajī이며, 마스투레 아르달란의 숙부다. 1891년에 그는 *Ḥadīqe-ye Nāṣerī-ye*를 저술했다.

6 본명은 'Alī Akbar Vaqāye'negār Kordestānī이며, Fakhr al-Katāb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 1901년에 그는 *Toḥfe-ye Nāṣrī*를 저술했다.

7 본명은 Moḥammad Mardūkh이며, 1956년에 *Tārīkh-e Kordestān*을 저술했다.

주의 계보와 활동상을 남기기도 했다. 이 기록들은 다소 과장된 면도 있고, 산성을 세밀하게 다루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들의 저술은 가문의 첫 번째 인물이 샤흐리주로(Sharizur)로 이주한 이후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팔란간(Palangān), 잘름(Ẓalm), 하사나바드(Ḥassanābād), 마리반(Marīvān)의 거점 산성을 확보하며 지배가문으로 성장하고, 사파비조에 복속한 뒤에 평지성 사난다즈(Sanandaj)[8]로 천도하면서 제한된 지배권을 유지하다가, 카자르조 시기에 몰락했던 상황마다 달라진 산성의 역할과 의미를 두루 살필 수 있는 유일한 문헌으로서 가치가 크다.

아르달란 가문의 산성을 주목한 연구자들이 앞서도 있었다. 알리자데(Alizadeh, 2004; 2005; 2021)는 17세기 초에 솔레이만 한이 건설한 사난다즈의 입지 조건, 도시 구조, 주요 건축의 특성에서 쿠르드인의 건축 전통을 확인하고자 했지만, 그의 관심은 사난다즈에 집중되어 산성을 다룬 내용은 극히 소략했다. 자레이(Zarei, 2013a, 2013b, 2014)는 접경지역의 제한적 조사 여건에서 하사나바드의 건물지와 성벽을 조사하고, 사난다즈에 남아 있는 여러 건물을 실측했지만, 이 성과를 아르달란의 역사와 연관시키지 못했다. 아키히코(山口昭彦, 2021)는 가문의 거점이 산성에서 평지성으로 바뀌던 시기에 정치, 사회, 경제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하사나바드와 사난다즈를 비교했지만, 다른 산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앞선 연구자들은 주로 평지성 사난다즈에 집중했고, 이 가문의 초기부터 몰락까지 중요한 정치 무대였던 거점 산성의 특성과 변화 양상을 총체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지금까지 다른 어떠한 쿠르드 가문의 산간성채도 통시적인 시각에서 살피려는 시도가 없었다.

이에 연구자는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 역사를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산성의 점령 시기, 입지 조건, 방어시설 사용을 중심으로 재편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르달란의 군주들이 지배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확보한 네 산성의 시기별 특성을 살피고, 그들이 거대 제국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 산성을 활용한 방법과 이후 산성을 포기하고 평지로 진출한 뒤에 자치권을 상실한 과정을 검토해, 쿠르드 지배가문들이 전근대 제국에 저항과 복속하는 과정의 역사적 단

8 현재 이란 코르데스탄주의 주도다.

면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먼저 비틀리시와 가문사가들이 편찬한 문헌기록을 통해 아르달란 가문의 역사를 지배세력의 구축, 유지, 상실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거점 산성이 가진 의미를 살폈다. 이에 가문의 첫 인물이 쿠르디스탄에 이주한 배경과 초기 군주들이 점령한 네 산성의 확보 순서에 따라 달랐던 입지 조건과 방어시설의 특성을 먼저 살폈다. 이어서 오스만조와 사파비조의 국경 쟁탈전이 활발해진 시기에 이 가문의 군주들이 두 제국과 관계를 맺으며 정권 보존을 위해 네 산성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확인했다. 이후에는 아르달란 군주들이 사파비 왕실에 복속하는 과정에서 거점 산성을 포기하고 평지성을 건설해 천도한 이후 페르시아계 왕조에 복속한 상황에서 제한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실패한 이후 몰락하는 과정을 살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 활동에서 거점 산성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고찰했다.

II. 다수의 거점 산성 확보와 지배세력 구축

1. 몽골-투르크 제국의 정복 활동과 아르달란의 산간 이주

아르달란 가문의 첫 번째 군주는 역사가마다 이름과 출신을 다르게 설명할 만큼 행적이 분명치 않다. 그에 대해 처음 언급한 비틀리시는 쿠르디스탄에 전하는 구전을 참조해, 아르달란(Ardalān)이라는 인물이 첫 번째 군주이며, 이 가문의 군주들이 묘비명을 두 가지 언어로 새기는 방식이 아흐마드 이븐 마르완(Aḥmad ibn Marwān)[9]의 후손들과 동일하기 때문에, 그가 디야르바크르(Diyarbakır)[10] 출신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비틀리시는 아르달란이 어느 날 샤흐리주르(Shahre Zūl)에 들어왔고, 이후 구란 부족(Ṭāīfe-ye Gūrān) 사이에서 생활했

9 1차 십자군 전쟁에서 활약한 장군이고, 현재 튀르키예 동부에 위치한 디야르바크르 출신이다.

10 튀르키예 동부에 있는 도시다. 이곳은 990~1085년경에 메소포타미아 북부, 튀르키예 동부, 아르메니아 일대를 통치한 마르완조(Marwanids)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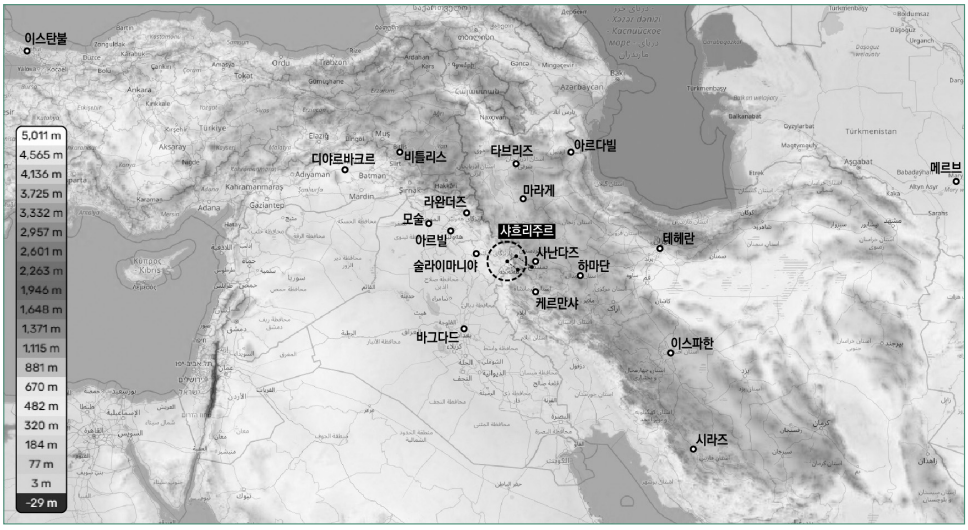


그림 1 샤흐리주르와 아르달란 가문의 네 산성 위치(topographic-map.com, 편집)

으며, 칭기즈 술탄 정부 말기에 이르러 샤흐리주르 너머까지 다스리는 독립정권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Bitlīsī, 1998: 82-83). 샤리프 카지는 아르달란이 디야르바크르에서 위세를 떨친 모함마드 이븐 마르완(Moḥammad ibn Marwān, ?~709/10 CE 생몰)[11]의 후손이고, 그가 팔란간[12]에서 미르 지아 앗 딘(Mīr Zīā' al-Dīn)[13]이 이끌던 구란 부족과 생활했으며, 이후 아미르 티무르(Amīr Tīmur, 1370~1405 CE 재임)의 명으로 샤흐리주르를 통치했다고 설명했다(Sharīf Qāẓī, 2000: 13). 비틀리시의 저술을 참조한 샤리프 카지가 아르달란의 출신을 다르게 밝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호스로우와 마스투레는 그가 사산조의 창립자 아르다시르 1세(Ardashīr Pāpkān, 211/2~224 CE 재임)의 후손이고, 언젠가부터 모술[14]과 디야르바크르에 살던 그의 자손 중에 한 명으로서, 징기스칸 술탄 정권 시기에 빈번했던 반란과 전란을 피해 샤흐리주르로 이주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그가 징기즈칸 정권 말기에 관할

11 우마이야 칼리프조의 왕자이자, 아르메니아를 정복한 장군 중에 1명으로 생각된다.

12 이란 코르데스탄주 서부에 속해 있는 산간 마을이다.

13 구란 부족을 이끌던 군주로 알려져 있지만, 생몰연대와 구체적인 행적이 확인되지 않는다.

14 이라크 북부지역에 위치한 도시다.

지를 확장했다고도 설명했다(Khosrow, 1914: 4-5; Mastūre, 2019: 70-71). 이처럼 두 역사가는 현지에서 유통되던 구전을 더해 아르달란의 혈통을 확대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이후, 사난다지는 앞선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아르달란이 아르다시르 1세와 메르브(Merv)[15]에서 사산조의 마지막 왕 야즈데게르드 3세(Yazdegerd III, 632~651 CE 재임)를 살해한 방앗간지기 호스로우(Khosrow-ye Āsīabān)의 아들 아르달(Ardal)이라는 구전 외에도, 압바스 혁명을 주도한 아부 무슬림(Abū Muslim Mervzī, 718/9~? CE 생몰)을 도와 쿠르디스탄을 정복한 인물의 후손이라는 이야기를 소개하며 모두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비판했다. 대신, 그는 『쿠르드의 역사(*Tārīkh-e Akrād*)』에서 확인한 호스로우(Khosrow Banī-ye Ardalān)라는 인물을 첫 번째 군주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호스로우라는 인물은 1168년에 샤흐리주르에 왔고, 거주와 통치를 위해 잘름 성채(Qal'a-ye Ẓalm)를 건설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의 기후가 살기에 부적합해 칼호르 가문(Ṭāīfe-ye Kalhor)[16]이 관할하던 팔란간 지역을 정복하고 성채를 건립해 천도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호스로우가 1231년에 사망하기 전까지 42년 동안 징기즈 군주들의 명으로 코이(Koy), 하리르(Harir), 샤흐레바자르(Shahr-e Bāzār),[17] 라완더즈(Rawanduz) 등지를 정복했다고도 설명했다(Sanandajī, 1987: 90-1). 여기서 사난다지는 아르달란 가문의 첫 번째 군주에 대해 확신했지만, 가문명이 유래한 배경도 언급하지 않았고, 참고문헌도 밝히지 않아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마르두흐는 '아르달란'이 페르시아어의 복수형 표현이기 때문에, 첫 군주를 단수형인 '아르달'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18] 그에 따르면, 코바드(Qobād), 혹은 바바(Bābā)로도 불리던 아르달은 원래 두시크 가문의 샤 만수르(Shāh Maṣūr Dūshīk/Dūshtīk?)의 네 아들 중에 장남 피루즈(Fīrūz)였다. 1201년에 그의 부친이 투르크멘인들에게 살해된 이후, 피루즈는 코바드 사산(Qobād Sāsān)이

15 투르크메니스탄의 동부에 있는 도시다.

16 현재 이란 케르만샤주를 중심으로 세력을 보유했던 가문이다.

17 이라크 술라이마니야의 옛 이름이다.

18 마르두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이름은 현지에서 혼용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대다수의 역사가들이 사용한 '아르달란'을 가문의 첫 번째 인물로 보았다.

라 개명하고, 하사나비조의 사르합 이븐 바드르(Sarkhāb ibn Badr Ḥassanavī)[19]에게 피신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구란인들 사이에서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으며, 1232년에는 사람들을 모아 모자파르 앗 딘(Moẓafar al-Dīn)의 아르다빌(Ardabil) 성채를 함락시키기도 했다. 또한 그는 아제르바이잔의 투르크멘인들과 함께 잘랄리 가문의 아미르 샤라프 앗 딘(Amīr Sharaf al-Dīn Jallālī)을 공격했으나 성공하지 못해, 다시 구란인들에게 몸을 맡겨야 했다. 1258년에는 훌레구 한(Hulāgū Khān, 1218~65 CE 생몰)이 바그다드 공략을 위해 이라크 일대에 도착했다. 코바드는 케르만샤(Kermanshah)에 머물던 훌레구 한의 셋째 아들 요쉬무트(Yoshmūt Mīrza, ?~1271 CE)[20]를 찾아갔다. 요쉬무트는 노련하고 용맹하며 의욕적인 그에게 '바바'라는 칭호를 내리고 샤흐리주르의 통치도 맡겼다. 1276년에 그가 사망하고 나서 장남 콜룰 베이그(Kolūl Beīg)에게 권력이 넘어갔다(Mardūkh, 2016: 287-288). 이처럼 마르두흐는 첫 번째 군주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남겼다. 하지만 그가 Dūshik와 Dūshtīk이라고 다르게 적은 샤 만수르의 가문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그가 언급한 1201년의 샤 만수르 살해 사건은 그보다 200년 정도 지난 1393년에 아미르 티무르의 군대가 샤 만수르를 살해한 일화 외에는 비슷한 기록이 확인되지 않는다(이주연, 2020: 535). 이와 같은 불일치는 마루두흐가 문헌을 잘못 살폈거나, 내용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

역사가들은 아르달란이라는 첫 군주의 출신을 문헌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유명인사나, 몰락한 왕실과 연결해 통치의 정당성을 해명하려는 태도를 공유했다. 또한, 그들은 모두 아르달란을 디야르바크르와 모술처럼 외지 출신이라고 생각했는데, 쿠르드 방언 중에 중부어 소라니(Sorānī)와 남부어 칼호리(Kahorī)의 사용자 분포가 경계를 이루는 샤흐리주르에서 이 가문의 말이 '아르달란 방언(Gūyash-e Ardalān)'이라고 구별되는 것도 아르달란이 다른 말을 사용하던 외지인이었음을 나타낸다(Sheyholislami, 2015: 30). 비틀리시가 가리킨 칭기즈 술탄 정

19 샤흐리주르와 현재 이란 케르만샤에 이치하는 디나와르(Dīnavar)를 지배하던 하사나비조의 두 번 왕인 바드르 이븐 하사나비야(Badr ibn Ḥassanavīye, 979~1014 CE 재임)로 생각된다. 하지만 마르두흐가 언급한 인물과는 활동 시기가 다르다.

20 요쉬무트는 훌레구 칸의 세 번째 아들이었다. 1258년 몽골군이 바그다드에서 압바스 칼리프를 살해한 이후 이란과 이라크가 접경하는 아제르바이잔과 데르반드를 관할했다(라시드 앗 딘, 2018: 22).

부 말기, 샤라프 카지와 마스투레가 언급한 아미르 티무르 말기, 사난다지가 강조한 1168년, 마르두흐가 주장한 1201~1276년의 활동기를 고려하면, 아르달란은 12~15세기에 지속된 셀주크, 몽골, 티무르를 비롯한 몽골-투르크 제국들의 서아시아 정복기에 이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두 지역에서 군주가 수시로 바뀌던 혼란기로서, 아르달란은 이를 피해 원래 거주하던 지역을 떠나 샤흐리주르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그가 이주한 샤흐리주르는 특정 도시와 마을이 아니다. 이곳은 수많은 계곡과 능선이 분포하는 산간지대로서(그림 1), 지역마다 서로 다른 말을 사용할 정도로 소통이 어려운 고립지였다(Edmonds, 1957: 7).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아르달란은 혼란을 피해 산간에 몸을 숨긴 난민이었기 때문에, 집단 정체성이 다른 구란인 사이에서 생활해야 했고, 지역을 선점하던 가문과 경쟁하며 지배세력을 구축했다고 생각한다.

2. 지배가문의 초기 세력과 계곡의 자연성채 점령

아르달란 이후, 콜룰 베이그(Kolūl Beīg), 하자르 베이그(Khaẓar Beīg), 엘리야스 베이그(Elīyās Beīg), 하자르 베이그 2세(Khaẓar Beīg II), 아미르 하산(Amīr Ḥassan), 바벨루 베이그(Bābelū Beīg), 만다르 베이그(Mandar Beīg), 콜룰 베이그 2세(Kolūl Beīg II)로 이어지던 가문의 초기 군주들은 주변 지역을 정복하며 세력을 확장했다. 비틀리시가 말한 것처럼, 그들의 재임기와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문헌은 전하지 않는다(Bitlīsī, 1998: 83). 하지만 그들이 주인 없는 산간 계곡과 언덕에 성채를 건설하거나, 경쟁 가문의 산성을 정복하며 지배권을 확립하지 못했다면, 아르달란 가문은 역사에 남지 못했을 것이다. 분명, 이런 초기 군주들의 세력 구축 과정에서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성채는 가문의 거점으로서 중요했다. 하지만 네 산성은 점령한 시기별로 입지 조건과 방어시설의 사용 방식에 차이가 있었다.

팔란간과 잘름은 그들이 가장 먼저 확보한 산성이다. 앞서도 언급한 팔란간은 아르달란 가문 이전에 구란 부족의 쿠르드인들이 먼저 거주했고, 그중에 지배집단으로 성장한 칼호르 가문에서 선점하던 성채였다. 이 산성은 샤호산(Kūhhā-ye Shāhō)[21]의 동쪽을 따라 흐르는 탕기와르강(Cham-e Tangīwar)의 주변 계

출처: 필자 촬영(2017. 4. 30.; 2023. 12. 12.; 2023. 12. 12.)

그림 2 팔란간 성채의 전경, 진입로, 석축 유구

곡에 자리한 성채로서, 현재 팔란간(Palangān)이라고 부르는 마을(De)에서 남쪽으로 300m 정도 떨어진 세이흐오마르정원(Bāgh-e Sheīkh ‘Omar)보다 더 남쪽에 위치한다. 코르데스타니에 따르면, 이 성채는 깊고 험준한 돌산 가운데 위치하기 때문에 어떤 술탄도 정복하지 못했다(Kordestānī, 2005: 29). 실제로 이 성채는 안쪽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커다란 바위산이 있어 밖에서 잘 보이지 않고, 접근 통로도 매우 좁아 대규모 병력이 한꺼번에 공격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졌다. 이렇게 가파른 계곡 경사지에서 초기 군주들은 건물을 세우기 위한 석축 외에 어떠한 성벽이나 성문도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그림 2), 팔란간 성채는 지형을 활용한 자연적인 성채였다.

잘름 성채는 이름 외에 다른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며, 아르달란 가문 외에 다른 집단이 점령했다는 기록도 전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이곳은 지금까지 실체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팔란간 인근의 카쉬타르 마을(Rūstā-ye Kāshtār)[22]

21 이란의 코르데스탄주와 케르만샤주 경계에 있는 산맥이다. 과거에는 ‘왕의 산’을 의미하는 샤쿠흐(Shāh-kūh)라고 불렸다.

22 이란의 코르데스탄주에 속하며, 팔란간 마을에서 남동쪽으로 약 5km 거리에 위치하는 마을

출처: Zarei(2007)를 편집.

그림 3 잘름 성채의 위치 추정도

에서 태어나 이곳이 친숙한 역사가 로하니(Bābā Mardūkh Rōḥānī, 1923~1989 CE)[23]가 팔란간과 잘름을 모두 마을(Abādī)이라고 특정한 것을 보면, 잘름 성채도 팔란간과 비슷한 입지 조건을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Rōḥānī, 1992: 227). 자레이가 이곳을 지도에 표기한 적도 있지만, 추정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다(그림 3). 잘름 성채의 이름을 생각해 보면, 이곳은 술라이마니야 동쪽 지역에 흐르는 잘름강(Aw-i Ẓalm)[24] 인근이라고 생각되고, '잘름(Ẓalm)'이라는 명칭이 페르시아어로 '혹독한, 잔악한'을 의미하는 점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시설보다는 험준한 자연 지형에 있던 계곡성채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인근지역에서 아르달란 가문과 오랫동안 경쟁관계를 이룬 바반 가문(Khāndān-e Bābān)의 산성에서도 확인된다(그림 4). 이 가문의 첫 군주는 미르 압달의 아들 피르 부닥 바바(Pīr Būdāq Babā ibn Mīr Abdāl)이다(Bitlīsī, 1998: 280). 가문명은 피르 부닥을 따르던 하인과 노예들이 그를 '바바'라고 부르던 것에서 유래했다(Rōḥānī, 1992: 451). 바반 가문은 라르잔(Larjān), 소란(Sohrān), 셀두즈(Selduz)처럼 주로 술라이마니야 북쪽에서 성장했고,[25] 마라게(Marage)[26]를 여러 차례 정복하기도 했다. 이 가문은 내·외부의 분쟁 속에서 수차례 군주의 계보가 끊기며 유지되었는데, 호세인의 아들 하자르 베이그(Khaẓar Beīg ibn Ḥosseīn Beīg)가 오스만조의 무라트 한(Murad III, 1574~1585 CE 재임)이 보낸 모크리 가문의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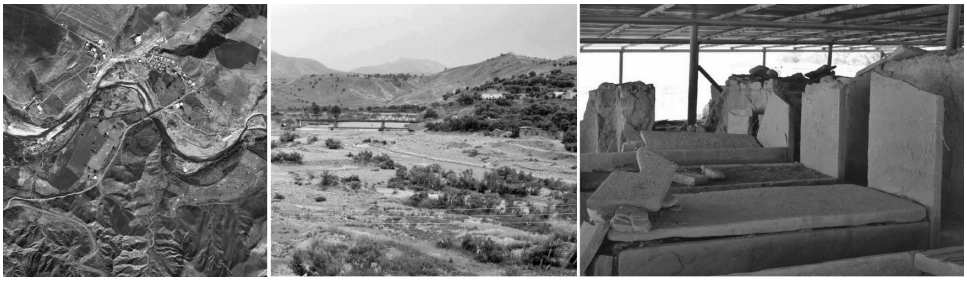
이다. 팔란간 거주민들은 하우람어(Hawrāmī)라는 방언을 사용하고, 카쉬타르 거주민들은 소란어(Sōrānī)를 다르게 사용한다. 그럼에도 계절이동을 했던 두 마을의 거주민들은 샤호산을 여름 거주지로 공유했기 때문에 서로의 마을 사정과 지리 정보를 공유했다.

23 그의 대표 저서로 『쿠르드의 유명인사들(*Mashāhīr-e Kord*)』(1992)이라는 3권의 책이 있다.

24 '아우(Āū)'는 물을 의미하며, 하천이나 강의 이름에도 사용하는 쿠르드어다.

25 이라크 아르빌 일대에 있는 도시들이다.

26 이란 타브리즈에서 남쪽으로 60km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도시다.



출처: Aḥmad(2017: 76-77).

그림 4 칼라이추왈란의 위성/전경사진과 바반 군주 묘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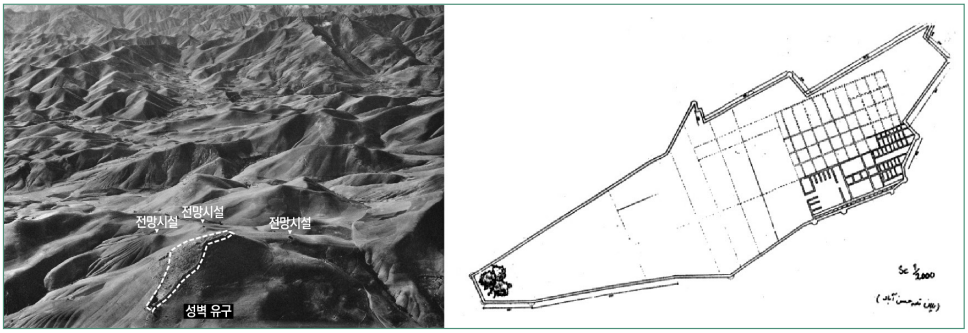
미레 베이그(Amīre Beīg Mokrī)에게 살해된 뒤에 해체되었고, 그 잔당들이 샤흐리주르 일대로 흩어지게 되었다(Bitlīsī, 1998: 287-288). 이후 바반 가문은 칼라이추왈란(Qal'a-i Chuwalan)[27]이라는 산성에서 세력을 회복했고(Edmonds, 1957: 318), 1784년에 에브라힘 파샤(Ebrāhīm Pāshā Bābān)가 술라이마니야 성채를 건설해 천도하기 전까지 이곳을 거점으로 사용했다(Rōḥānī, 1992: 457). 최근의 발굴조사에 따르면, 이곳에서도 성벽과 성문이 사용된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Ahmad, 2017: 76-78). 이처럼 샤흐리주르 일대에서 계곡의 성채는 아르달란의 전유물만은 아니었다. 뚜렷한 문헌 기록의 부재와 접경지역에서의 제한적인 조사 여건 때문에, 아직 전모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르달란과 바반 외에도 비슷한 여건에 있던 쿠르드 가문들은 자연 지형을 활용한 계곡성채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3. 언덕성채의 추가 정복과 네 산성 중심의 지배체제 확립

아르달란의 군주들이 언덕에 자리한 성채를 의도적으로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그들은 팔란간과 잘름 성채에 이어 하사나바드와 마리반이라는 언덕성채도 확보했다. 그중에 하사나바드는 1372년에 아미르 하산이 건립한 산성으로 알려져 있다(그림 5). 건립 당시에 그는 성채 북측에 마을[28]도 조성했다고 전한다

27 '추왈란 성채'를 의미한다.

28 현재 이란 코르데스탄주에 있는 하사나바드(Ḥassanābād)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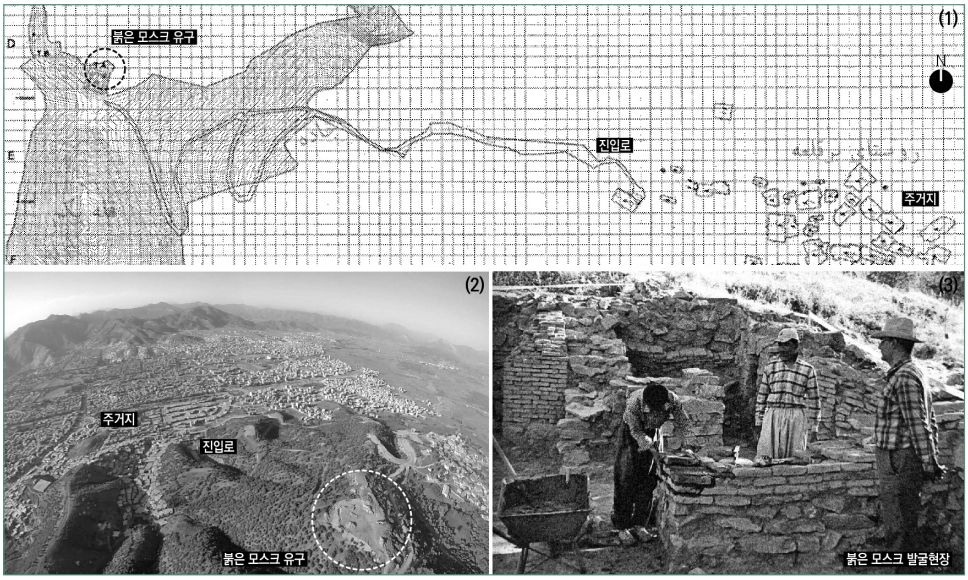


출처: Schmidt(1940); MCTH of Kordestan Province(2005).

그림 5 하사나바드 성채의 항공사진(1935)과 건물지 약식 실측도

(Sanandajī, 1987: 93). 현재 사난다즈에서 남쪽으로 5km 정도 거리에 위치한 하사나바드 성채는 이란 정부군이 주둔하고 있어,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건립 당시의 모습도 온전히 확인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1935년에 슈미트가 촬영한 항공사진을 보면, 이곳에는 가파른 언덕 정상의 능선을 따라 성벽을 설치했고, 그 바깥에는 주변을 감시할 수 있는 3곳 정도의 전망시설도 갖추었던 것 같다(Schmidt, 1946: PL. 106). 또한, 자레이가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현존 성벽 유구는 높이가 3m 이상이며, 안쪽에는 방형 평면을 가진 건물도 다수 존재했다(Zarei, 2013a: 56-57). 이곳에는 성벽 외에 다른 방어시설은 없었지만 가파른 돌산에 위치해, 사파비조의 중흥을 이끈 압바스 1세(Shāh ʿAbbās I, 1588~1629 CE 재임)가 수차례 공격을 시도해도 제압할 수 없었던 난공불락의 요새였다(Sharīf Qāẓī, 2000: 21-23; Khosrow, 1977: 20; Mastūre, 2013: 28-29; Sanandajī, 1987: 104-107; Mardūkh, 2016: 297-298).

마리반도 초기 아르달란 군주들에게 중요한 언덕성채였다. 이곳은 이란 마리반시의 이맘산(Kūh-e Emām)에 위치하여 이맘 성채(Qal'e-ye Emām)라고 불린다. 이곳도 사방이 깎아지는 절벽으로 이루어진 산 정상에 있어 접근이 어렵고, 상부로 접근하는 통로가 하나여서 출입의 통제에도 유리했을 것이다(그림 6). 이런 지형 때문인지 마리반 성채는 초기 군주들의 관할지 안에 포함되었음에도 일찍이 강화했다는 기록이 전하지 않는다. 16세기 중반 이 가문의 사르합 베이그(Sarḥāb Beīg, 1538~1567 CE 재임)가 오스만 술탄이 보낸 로스탐 파샤(Rostam Pāshā, 1505~1561



출처: Karīmīān and Ma'ṣūmīān(2017), Fig. 2; Ma'ṣūmīān(2016); Karīmīān·Ma'ṣūmīān(2017), Fig. 8. 편집

그림 6 마리반 성채의 실측배치도, 항공사진, 발굴 현장

CE 생몰)의 대규모 공격을 대비할 때까지 성채를 강화할 필요가 없을 정도 지형이 험준했다고 생각된다(Sanandajī, 1987: 96). 2016년 5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이곳에서 '붉은 모스크(Masjed-e Sūr)'라는 대형건물지의 발굴조사가 처음 실시되었다. 이 유구는 장방폭이 20m에 이르고, 2층 규모이며, 뒷부분이 산기슭에 반쯤 묻혀 있었다(Karīmīān et al., 2017: 554-555). 이 조사에서 건물지의 벽체 가장자리에서 이어진 선형의 기초 유구가 확인되어 성벽 사용을 짐작하게 한다. 앞으로 전면조사를 통해 밝혀야겠지만, 마리반도 하사나바드처럼 한 겹의 성벽과 가파른 돌산을 동시에 활용한 언덕성채였을 것이다.

아르달란 군주들은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성채를 차례대로 정복하며 거점으로 삼았다. 그중에 먼저 확보한 팔란간과 잘름 성채는 접근이 어렵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계곡의 자연성채였다. 이 부분이 흥미롭다. '성채'를 의미하는 '칼레(Qal'e)'는 산이나 언덕 정상을 의미하는 '콜레(Qolle)'에서 유래한 단어다(Eyice, 1988: 845). 이 때문에 성채는 대부분 높은 봉우리에 위치하고, 상

부의 중요시설 보호를 위해 성벽, 성문, 해자처럼 내·외부를 구분하는 인위적 시설도 사용한다. 하지만 아르달란의 두 산성은 이와 다른 입지 조건을 가졌고, 방어시설도 일절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팔란간과 잘름은 성채라고 부른다. 이는 아르달란 군주와 가문사가들의 남다른 성채 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그들은 첫 번째 군주 아르달란이 구란인들 사이에서 생활할 때의 팔란간을 '팔란간(Palangān)', '팔란간 지역(Maḥal-e Palangān)', '팔란간 마을(Qarīe-ye Palangān)'이라고 불렀지만, 그가 이곳을 정복한 뒤에는 '팔란간 성채(Qal'e-ye Palangān)'라고 바꾸어 말했다(최남섭, 2022: 176-178). 이는 그들이 물리적 조건보다 통치 거점으로 사용한 장소의 성격을 성채 판단에서 더 중요하게 고려했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인식은 지배권을 갖추기 시작한 가문 초기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성채를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며, 이후의 군주들이 하사나바드와 마리반 성채를 인위적으로 강화할 수 있었던 것은 상대적인 세력 성장을 나타낸다. 이렇듯 아르달란 군주들은 여건에 맞추어 시기별로 다른 입지 조건이었지만 모두 접근하기 어려운 요새형 산성을 추구했다. 이런 조건의 네 산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문의 군주들이 주변 집단과 경쟁하면서도 지배가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III. 네 산성의 전략적 운영과 독립성 유지

1. 오스만-사파비조의 국경 쟁탈과 마문 1세의 정권 상속

16세기 초부터 확장하던 오스만조와 사파비조가 국경을 이루던 쿠르디스탄에서 충돌했다. 당시 두 제국의 접경지역에서 성장한 쿠르드 가문들은 생존을 위해 한쪽의 지역 군사로 대리전쟁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때보다 많은 쿠르드 가문들이 역사에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시기에 벌어진 경쟁의 치열함을 반영한다(최남섭, 2022: 58). 모함마드 아민 자키가 당시를 가리켜 쿠르드인들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배신을 거듭하던 '동족상잔의 비극기'라고 말한 것처럼, 쿠르드 군주들은 생존을 위해 이웃한 가문과 경쟁하고, 혈족까지 죽이는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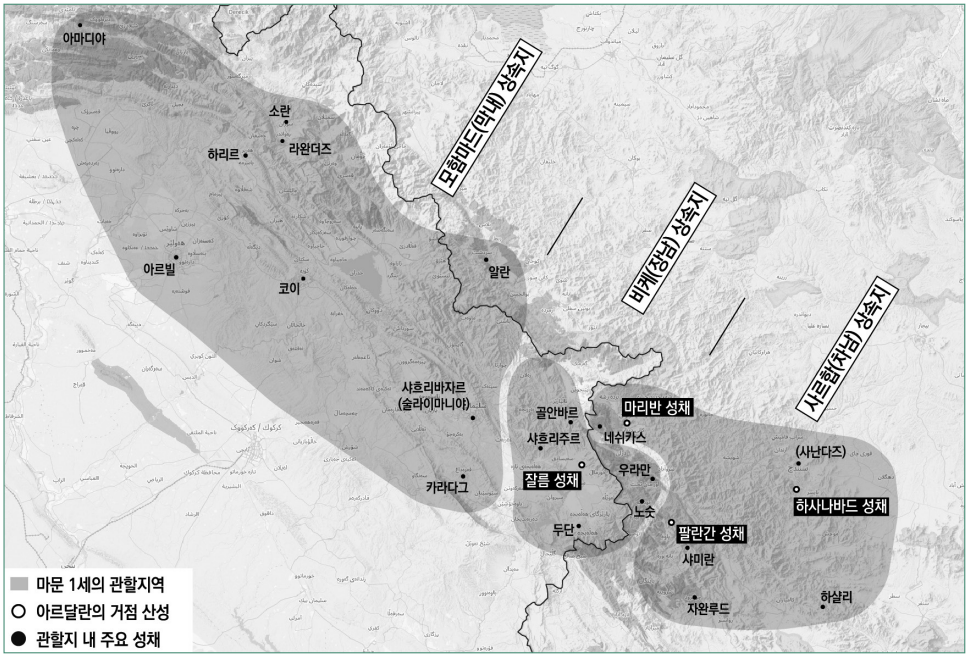
표 1 마문 1세의 관할지역과 세 아들의 상속지

마문 1세의 관할지역		
비케(장남): 중부지역	사르합(차남): 동부지역	모함마드(막내): 서부지역
잘름, 샤흐리주르, 노숫, 골안바르, 샤미란(샤호산), 다레 하와르, 두단(할랍자 인근), 하르드, 우라만 등	팔란간, 켈라쉬(자완루드), 하샬리, 하사나바드, 마리반, 알리 쇼크르(에스판다바드), 네쉬카쉬, 타누라 등	사루첵, 카라다그, 사르다쉬트, 샤흐레바자르(술라이마니야), 아르빌, 코이, 아마디야, 라완더즈 등

황을 피할 수 없었다(Zaki, 1996: 134).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았던 아르달란 가문도 두 제국, 경쟁 가문, 혹은 혈육 사이에서 동맹과 적대를 수시로 바꾸어야 했다. 이렇게 생존을 모색하던 상황에서 아르달란의 군주들은 외부 세력과 충돌하는 전장이자,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피난처로서 네 산성을 활용했다.

당시 산성의 사용 방식은 마문 베이그 1세(Māmūn Beīg, 1457~1495 CE 재임)의 세 아들이 활동하던 시기부터 두드러졌다. 마문 1세는 오스만조와 사파비조에서 그의 관할지를 주목할 만큼 세력을 확장한 군주로 명성이 높았다(Bitlīsī, 1998: 84-85). 당시 그의 위상은 세간에서도 가문명을 '마무니 가문(Banī-ye Māmūnī)'이라고 바꾸어 부를 정도로 대단했다고 전한다(Sanandajī, 1987: 95). 비틀리시에 따르면, 그가 관할한 지역은 남쪽으로 이란의 케르만샤(Kermanshah)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라크의 아마디야(Amadiya)에 이를 정도로 방대했다. 약 38년 동안 지역을 다스리던 마문 1세는 오스만과 사파비 두 제국의 경쟁이 치열해지기 전에 비케 베이그(Bīke Beīg, 1495~1535 CE 재임), 사르합 베이그(Sarkhāb Beīg, 1538~1567 CE 재임), 모함마드 베이그(Moḥammad Beīg)에게 관할지를 나누어 상속했다(Bitlīsī, 1998: 84).

여기에 가문사가들의 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세 아들이 각각 상속받은 지역의 위치와 정치적 상황을 가늠할 수 있다(표 1). 장남 비케는 잘름(Ẓalm), 샤흐리주르(Shahrizūl), 골안바르(Gol 'Anbar), 샤미란(Shamīrān), 다레 하와르(Dare Hāwār), 두단(Dūdān), 노숫(Nōsūd), 하르드(Hard), 우라만(Ūraman)을 상속받았다. 그의 관할지는 대체로 부친이 관할하던 지역의 중앙 부근에 있었다. 여기에는 모술(Mūṣel), 샤흐리주르(Shahr-e zūr), 우라만(Ūraman)처럼 평원과 산간이 고루 분포했으며, 잘름 성채가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차남 사르합은 전체적으로 동쪽에 분포하는 팔란간, 자완루드(Jawānrūd), 하샬리(Qashalī), 하사나바드(Sne), 마리반



출처: topographic-map.com. 편집

그림 7 마문 1세의 관할지역과 세 아들의 상속지

(Mehrabān), 알리 쇼크르('Alī Shokr), 네쉬카쉬(Neshkāsh), 타누라(Tanūra) 일대를 받았다. 그의 지역은 팔란간, 마리반, 하사나바드처럼 초기 산성을 포함했으며, 사파비조의 영토와 가까운 특징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막내 모함마드는 주로 북쪽지역을 상속받았다. 그가 물려받은 지역은 샤흐레바자르(Shahr-e Bāzār), 카라다그(Kara Dagh), 사루첵(Sarūchek)처럼 샤흐리주르 인근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코이(Kōy), 아르빌(Arbīl), 하리르(Ḥarīr), 아마디야('Amadīya), 라완더즈(Rawāndez)처럼 가문의 초기 거점과 멀리 떨어진 격오지가 대부분이었다. 이 때문에 두 형제의 관할지보다는 오스만조와 더 가까웠고, 이 제국의 공세도 먼저 받아야 했다(Bitlīsī, 1998: 84-85; Sharīf Qāẓī, 2000: 14-15; Khosrow, 1977: 10-11; Mastūre, 2013: 21-22; Mastūre, 2019: 79-82; Sanandajī, 1987: 95; Mardūkh, 2016: 291)(그림 7).

2. 마문 2세와 사르합의 오스만군 대응과 반대 방향 이동

1535년에 장남 비케가 사망하고, 그의 아들 마문 베이그 2세(Māmūn Beīg, 1535~1537 CE 재임)가 즉위하면서 혈족 간의 다툼이 시작되었다. 당시 서쪽에서 확장하던 오스만조의 술레이만 1세(Suleiman I, 1520~1566 CE 재임)가 샤흐리주르 정복을 위해 호세인 파샤(Hosseīn Pāshā)와 기병 4,000명을 파병한 것이 시발점이었다. 마문 2세는 그들의 공세를 막지 못해 잘름 성채로 피신했고, 곧이어 오스만군이 쫓아와 이곳도 포위했다. 한 달 동안 이어진 대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마문 2세는 칠흙같이 어두운 밤에 측근들을 데리고 성채를 빠져나와 하마단의 기안 성채(Qal'e-ye Gīān)[29]로 도주를 시도했다. 그는 이곳이 숙부 사르합의 관할지 너머 동쪽의 사파비조 영토에 있었기 때문에, 오스만군이 따라오지 못하겠다고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의 계획을 눈치챈 오스만조의 병사들은 성채를 빠져나오던 그를 사로잡아 이스탄불의 오스만 궁정으로 보내어 투옥했다(Bitlīsī, 1998: 84-87; Sharīf Qāẓī, 2000: 14-19; Khosrow, 1977: 12-17; Mastūre, 2013: 22-28; Mastūre, 2019: 83-84; Sanandajī, 1987: 96-99; Mardūkh, 2016: 292-294).

이 소식을 접한 사르합은 탄식하며 복수를 다짐했고, 1537년에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잘름 성채를 되찾았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서쪽으로 더 진군해 동생 모함마드의 관할지까지 정복하는 욕심을 부렸다. 형에게 쫓겨난 모함마드는 술레이만 1세의 이스탄불 궁정으로 피신했다. 오스만 술탄은 그를 융성하게 대접하고, 마문 2세도 석방해, 그들을 쿠르디스탄 정복에 투입했다. 당시 사르합은 동생과 조카의 보복을 예상하고 사파비조의 타흐마스브 1세(Ṭahmāsb I, 1524~1576 CE 재임)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했다. 동시에, 그는 마리반 성채의 방어시설도 보강하고, 주변의 여러 산 위에 성채도 건설했다(Sanandajī, 1987: 96; Mardūkh, 2016: 292). 얼마 지나지 않아 술레이만 1세가 아르달란의 두 군주와 로스탐 파샤를 기병 3만 명과 함께 파병했다. 이에 사르합은 샤흐리주르에서 8,000명의 기병과 보병을 준비했다. 여기서 그들은 8일 동안 전투를 치렀고, 오스만과 사르합 측에서 각각 7,000명과 3,0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 격

29 현재 이란 하마단주에 있는 기안 언덕(Tepe-ye Gīān)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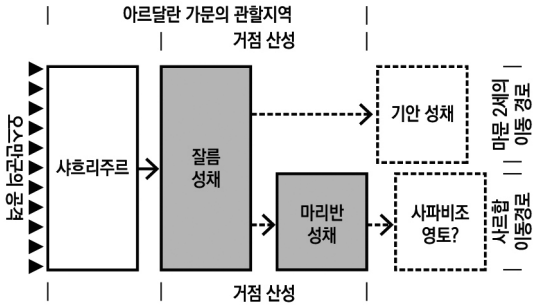


그림 8 마문 2세와 사르합의 이동 경로

렬한 전투가 끝난 뒤에 사르합은 동쪽의 잘름 성채로 거점을 옮겼고, 오스만군도 따라와 이곳을 포위했다. 이후 약 2년 동안 이어지던 대치 상황에서 사르합은 타흐마스브 1세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호세인 베이그(Ḥosseīn Beīg) 장군과 1만 5,000명의 지원군을 받았다. 하지만 오스만군의 수장 로스탐 파샤가 병사하며 갑작스레 전투가 끝났다(Bitlīsī, 1998: 84-87; Sharīf Qāẓī, 2000: 14-19; Khosrow, 1977: 12-17; Mastūre, 2013: 22-28; Mastūre, 2019: 85-88; Sanandajī, 1987: 96-99; Mardūkh, 2016: 292-294). 여기서 만약, 잘름 성채에서 수세에 몰렸다면 사르합은 미리 정비해 두었던 마리반 성채로 이동했을 것이고, 이후에 상황이 더 나빠졌다면 마문 2세처럼 동맹국 사파비조의 영토로 피신할 계획도 세웠을 것이다(그림 8).

이 시기에 아르달란 군주들에게 거점 산성은 거대 제국이나 혈족 간의 다툼에서 최후의 보루였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 하나의 고립된 산성이 아니라, 다수의 산성을 선택적으로 이용했다(그림 8). 오스만 술탄의 공세를 견디지 못한 마문 2세는 샤흐리주르에서 잘름 성채로 거점을 옮겼다. 사르합도 샤흐리주리에서 오스만 군대와 격돌한 뒤에 잘름 성채로 이동했으며, 이후의 이동을 대비해 마리반 성채도 보강했다. 두 군주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들은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적군의 반대편에 있는 산성으로 옮겨 투쟁을 이어 갔다. 또한, 마문 2세가 하마단의 기안 성채로 도주를 시도한 것처럼, 그들은 관할지 너머에 있는 동맹국으로의 도주도 불사했다. 사르합이 타흐마스브 1세와 동맹 유지에 노력한 이유는 마리반 성채가 함락되었을 때를 대비해, 최종적으로 피신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이 시기에 아르달란 군주들은 오스만조와 사파비조라는 거대 제국의 정복이 아니라, 두 제국의 공세를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문의 세력을 유지하고자 산성을 옮겨 다닌 것이었다.

3. 할로 한의 독자노선 추구와 네 산성 중앙의 피난지 구상

할로 한(Halō Khān, 1590~1616 CE 재임)의 산성 선택은 일방향적이지는 않았다. 그는 사르합의 아들 11명 중에 셋째 솔탄 알리 베이그(Soltān ʻAlī Beig)의 차남이다. 부친의 짧은 재임기 이후에는 막내 숙부 바사트 베이그(Basāṭ Beīg, 1567~1578 CE 재임)와 형 테이무르 한(Teīmūr Khān, 1578~1590 CE 재임)이 먼저 군주가 되었다. 테이무르 한은 무라트 한(Murad III, 1574~1595 CE 재임)으로부터 '파샤(Pāshā)[30]'라는 칭호를 받을 만큼 오스만 술탄과 긴밀했지만, 칼호르(Kalhor)와 로르(Lor)처럼 아르달란의 관할지 인근에서 성장한 쿠르드 가문들과 동맹한 사파비조는 적대했다. 1589년 마리반 성채에서 사파비조의 키질바시(Qizilbash) 부대와 대치하던 어느 날 밤에 테이무르 한은 갑작스레 날아온 화살을 맞아 사망했고, 이어서 팔란간에 머물던 할로 한이 새로운 군주가 되었다(Bitlīsī, 1998: 87). 즉위 이후, 그는 형과 마찬가지로 오스만 술탄과 가깝게 지냈다. 하지만 할로 한은 메흐메트 3세(Mehmed III, 1595~1603 CE 재임), 아흐메트 1세(Ahmed I, 1603~1617 CE 재임), 무스타파 1세(Mustafa I, 1617~1618, 1622~1623 CE 재임)로 술탄이 수시로 바뀌던 오스만조에 가문의 운명을 맡길 수 없었다. 그렇다고 그가 형을 살해한 사파비조의 압바스 1세에게 기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할로 한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고 독자적인 노선을 추구했다. 두 제국의 확장 속에서 그가 눈에 띄게 관할지를 넓히지는 못했지만, 거대 제국에 복속하지 않고 자치세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그의 재임기를 아르달란 역사의 전성기로 여긴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네 산성이 있었다. 즉위 직후, 할로 한은 수차례의 전투로 허물어진 잘름과 마리반 성채를 먼저 수리했다. 이어서 그는 마리반으로 즉위하러 온 사이에 칼호르 가문이 점령한 팔란간을 되찾고, 이곳에 관공서, 모스

30 이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부족장, 혹은 지역 군주를 Amīr, 혹은 Beīg라고 불렀다. 16세기부터 첨예하게 대립한 오스만조와 사파비조는 상대편을 격하하기 위해, 왕이나 술탄 명칭을 조금씩 바꾸어 자신의 지역군주들에게 내렸다. 오스만조에서는 사파비조의 Pādshāh를 의식해 Pāshā라는 칭호를 내렸고, 사파비조에서는 오스만조의 Sulṭān을 Soltān으로 바꾸어 내렸다(Soltānī, 1992: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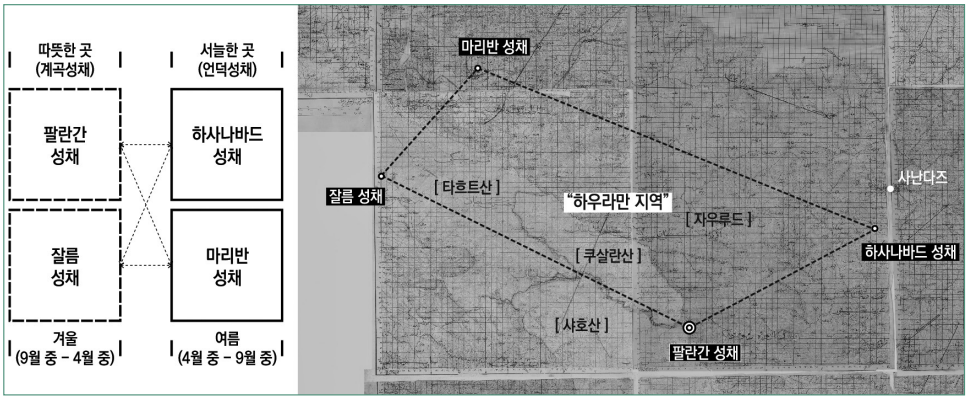
크, 마드라사 같은 공공시설을 건립했으며, 여기에 더해 팔란간 주변에 여러 마을도 조성했다(Mardūkh, 2016: 296). 마지막으로 그는 하사나바드 성채를 수리해서 네 산성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 당시 그의 수도는 팔란간이었지만, 할로 한은 이곳에만 머물지 않고 네 산성을 함께 사용했다. 팔란간과 잘름은 계곡에 위치해 겨울철 찬바람을 피할 수 있는 '따뜻한 곳(Garmsīr)'이며, 하사나바드와 마리반은 높은 해발고도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서늘한 곳(Sardsīr)'이다. 지금도 이곳에서는 겨울과 여름 동안 '데(De)'[31]라고 부르는 따듯한 동영지(冬營地)와 '하와르(Hawār)'[32]라는 서늘한 하영지(下營地)에서 나누어 생활하는 것처럼(최남섭, 2019: 153-181), 그의 산성 선택에 계절 기후와 입지 조건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에 대해 마르두흐는 할로 한이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을 각각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차적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했고(Mardūkh, 2016: 297), 여기에 알리자데는 몽골-투르크 제국의 전통을 예로 들며 그의 순행이 관할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통치력 강화 수단이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Alizadeh, 2004: 9). 하지만 할로 한은 정기적으로 산성을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두 제국의 편에 섰던 경쟁 가문의 쿠르드인들도 이곳 지리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가 정기적으로 성채 밖을 나오는 적군의 손쉬운 공격 대상을 자처했을 리가 만무하다. 할로 한이 여름에 물이 말라 생활할 수 없는 계곡성채와 겨울 동안 기온도 낮고 눈도 많이 내려 머무를 수 없는 언덕성채를 급변하던 정세에 맞추어 전략적으로 선택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그림 9).

할로 한에게는 무엇보다 최종 피난처가 중요했다. 두 제국의 영토로 피난할 수 없던 그는 네 거점 산성의 중앙에 있는 하우라만 지역(Manāṭaqe-ye Hawrāmān)[33]을 최후의 보루로 구상했을 것이다(그림 9). 이곳은 타흐트산(Kūh-e

31 '마을'을 뜻하는 페르시아어다.

32 '임시적인 거주지'를 의미하는 하우람어(Hawrāmī)로서, 수원 확보에 따라 거주 여부가 달라지는 하영지의 불안정성을 나타내는 현지어다(최남섭, 2019: 166-167).

33 하우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거주지역을 가리킨다. 현재 이란 코르데스탄주와 케르만샤주의 경계지역에 분포한다. 2021년에 이곳의 마을 12개소가 '하우라만의 문화경관(Cultural Landscape of Uramanat/Hawraman)'이라는 이름으로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되었다. 외부에 잘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토착적인 문화를 지킬 수 있었던 상황을 반영한다.



출처: Dāyere-ye Joqhrāfīāī-ye Setād-e Artesh(1943; 1946/7; 1943/4) 편집.

그림 9 할로 한의 거점 산성 선택과 최종 피난지 구상

Takht), 쿠살란산(Kūhhā-ye Kūsallān), 샤호산(Kūhhā-ye Shahō)이 중심부를 이루는 산간지대로서, 기원전 8세기에 카랄라의 사람들(People of Karalla)이 신아시리아의 사르곤 2세(Sargon II, 722~705 BCE 재임)에게 대항했고(Frame, 1999: 31-57), 1393년에는 투르크멘인들이 아미르 티무르(Amīr Tīmūr Gūrkān, 1370~1045 CE 재임)의 군대를 피해 몸을 숨겼으며(Yazdī, 2008/9: 508-509), 1925~1931년에 하우라만의 자파르 솔탄(Ja'far Soltān of Hawrāmān)이 팔레비 정부에 대항했고(Hawrāmī, 2007: 642-643), 지금도 이란, 이라크, 터키, 시리아에서 이탈한 반정부 쿠르드인들이 숨어서 반란의 기회를 기다리는 역사적인 피난지다(최남섭·전봉희, 2021: 121-132). 할로 한이 접근하기 어려운 팔란간 성채를 굳이 수도로 정한 뒤에 공공시설을 세우고 주변에 여러 마을을 조성해 가문의 구성원들을 이주시킨 이유는 하우라만 지역으로 진입하는 남측 통로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그림 9).

IV. 산성의 포기와 전근대 지배가문의 몰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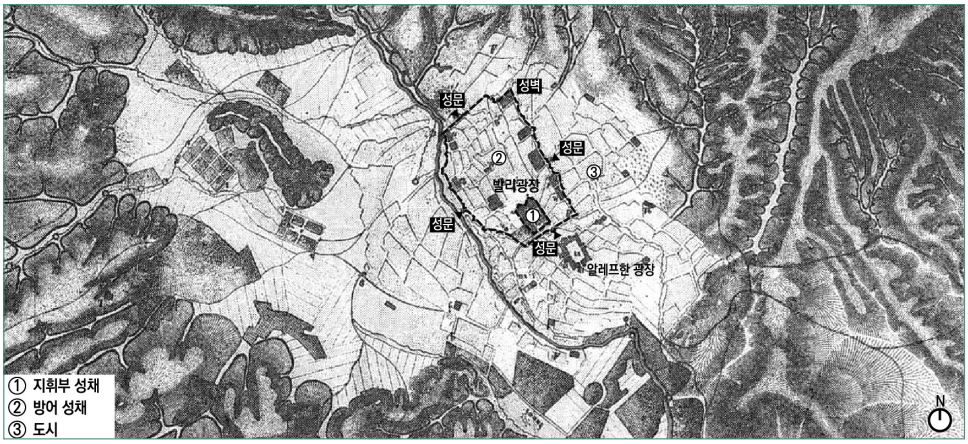
1. 솔레이만 한의 사파비조 복속과 평지성 사난다즈 천도

할로 한은 사파비조의 압바스 1세가 여러 차례 시도한 공격을 모두 막아냈지만, 그의 자치정권이 영원할 수는 없었다. 노쇠한 할로 한은 압바스 1세와 휴전 협정을 체결하고, 그의 아들을 이스파한 궁정에 볼모로 보냈다. 이후 1616년에 아들 한 아흐마드 한(Khān Ahmad Khān, 1816~1836 CE 재임)이 하사나바드로 돌아와 부친의 뒤를 이었다. 이 새로운 군주는 자신의 이름으로 후트바를 개최하고 주화를 발행하며 독립 군주임을 선포했다(Mardūkh, 2016: 302). 하지만 그는 사피비조 궁정에서 교육받고, 압바스 1세의 여동생 자린콜라 하놈(Zarīn Kolāh Khānom, 황금 모자를 쓴 여인)과 혼인한 친사파비적 인물이었다. 사난다지가 그의 아내를 빗대어, "이 황금빛의 비계덩어리는 재앙이다(Īn donbe-ye zard bībalā nīst)"라는 구전을 인용한 것처럼(Sanandajī, 1987: 108), 그의 재임기부터 가문의 독립성은 기울기 시작했다. 압바스 1세에 이어 즉위한 사피 1세(Shāh Ṣafī, 1629~1642 CE 재임)가 그의 아들 사르합 한(Sarḥāb Khān)의 눈을 뽑아내는 형벌을 내린 것이 시작이었다(Sharīf Qāẓī, 2000: 25-26; Khosrow, 1977: 28; Mastūre, 2013: 33; Mastūre, 2019: 117-118; Sanandajī, 1987: 118; Mardūkh, 2016: 301). 왕위 쟁탈전에 가세할 수 있는 인척 제거를 위해 내린 조치에 분노한 한 아흐마드 한은 오스만조에 가담해 복수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실패했고,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스파한에서 자란 조카 솔레이만 한(Soleīmān Khān, 1636~1655 CE 재임)이 가문의 새로운 군주가 되었다.

1636년에 즉위한 솔레이만 한은 사피 1세의 명을 받고 산간을 나와 '스네(Sene)'[34]라는 언덕 주변에 펼쳐진 평탄한 분지에 사난다즈 성채를 건설했다(그림 10). 이곳은 압바스조 시기에 시사르(Sī Sar)[35]라고 불리며 번성했지만(Qazvīnī, 2005: 278), 건설 당시에는 자린켑쉬 부족(Ṭāīfe-ye Zarīn Kefsh, 황금신발 부족)이 생활

34 사난다즈는 언덕 이름 'Sine, Senne, Sne'와 페르시아어로 성채를 의미하는 'Dezh'가 합쳐진 지명이다. 스네 언덕의 성채를 뜻한다(Sanandajī, 1987: 122; Kordestānī, 2001: 30; Mardūkh, 2016: 304)

35 30곳의 거점을 의미한다.



출처: Mehryar et al.(1999: 196) 편집.

그림 10 1851년 사난다즈 실측도

하는 작은 마을로 쇠락한 상태였다(Rōḥānī, 1992: 239). 솔레이만 한은 이 언덕 위에 지휘부 성채(Dezh)를 세우고 주변에 공공시설과 주거지역을 만들었으며, 서측에는 성채 상부로 물을 끌어오기 위해 지하수로도 설치했다(Sharīf Qāẓī, 2000: 28; Khosrow, 1977: 31; Mastūre, 2013: 35; Mastūre, 2019: 125; Sanandajī, 1987: 122; Mardūkh, 2016: 304). 1851년 러시아인들이 조사한 내용을 통해, 당시의 성채 구조를 가늠할 수 있다. 사난다즈는 지휘부 성채(Nārīn Qal'e), 방어용 성채(Qal'e-ye Estḥakāmāt), 도시(Shahr)가 성벽으로 구분된 삼중 구조의 성채였다(Mehryar et al, 1999: 61). 지휘부 성채에는 군주와 그의 일가가 거주하는 저택과 정원이 있었고. 방어 성채에는 발리광장(Meīdān-e Vālī)을 중심으로 주요 인사의 저택('Emārāt), 모스크(Masjed), 포탄과 화약 저장고(Tūp va Bārūt Khāne), 전망대(Naqare Khāne), 시장(Bāzār) 등이 위치했으며, 도시지역에는 알레프한 광장(Meīdān-e Alef Khān)에 모여 있는 모함마드 하산 한(Moḥammad Ḥassan Khān), 알리 미르자 알리('Ali Mīrzā 'Alī), 아카 모함마드 아흐다스(Āqā Moḥammad Aḥdāth)라는 대상숙소를 중심으로 종교시설, 공용욕실, 시장을 포함한 공공시설과 거주지가 함께 있었다. 이 도시 바깥에는 다수의 정원도 있었다.[36]

이런 사난다즈는 험준한 산간의 요새가 아니라, 접근하기 쉬운 평지의 도

시였다. 1639년 5월 17일 오스만조와 사피비조가 국경을 합의하는 조합조약('Ohdnāme-ye Zohāb)을 체결한 이후에는 많은 여행자들이 두 제국의 국경을 넘나들며 이곳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다(山口昭彦, 2021: 164). 프랑스 여행가 타베르니에(Jean-Baptiste Tavernier, 1605~1689 CE 생몰)는 약 40년 동안 파리에서 이스파한으로 가는 다양한 경로를 확인한 뒤에 여행기를 출판했다. 여기에는 1644년 그가 알레포(Alep)를 출발해, 에르반(Ervan)과 모술(Ninive)을 거쳐, 사난다즈(Sneirne)에서 솔레이만 한(Soliman-Kan)을 만나 여행 허가를 받은 뒤에 이스파한 궁정에 도달한 여정도 수록되었다. 당시 그는 국경 통과를 위해 신분을 확인하는 동안 작은 마을에서 대기한 것 외에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Tavernier, 1676: 199-205). 비슷한 시기에 에블리야 첼레비(Evliya Çelebi, 1611~1682 CE 생몰)가 이곳의 북측과 남측 성문을 각각 모술문(Darvāze-ye Mūṣel)과 바그다드문(Darvāze-ye Baghdād)이라고 명명한 것도 당시 사난다즈의 개방적인 성격을 반영한다(Chelebi, 2010: 224-5).

이런 상황에서 사난다즈는 점차 상인이나 사절단처럼 다양한 외부인들이 머무르는 교역도시로 성장했다. 가문사가들에 따르면, 건설 직후 이곳에는 궁전, 저택, 모스크, 마드라사, 시장처럼 주로 내부 구성원을 위한 시설이 있었던 것 같다(Sharīf Qāẓī, 2000: 28; Khosrow, 1977: 31; Mastūre, 2013: 35; Mastūre, 2019: 125; Sanandajī, 1987: 122; Mardūkh, 2016: 304).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첼레비는 이곳에서 다수의 관청, 대상숙소, 공용욕실 외에도 수많은 상점을 목격했다(Chelebi, 2010: 225). 18세기 초 오스만조에서 사난다즈를 정복한 뒤에 작성한 세금 대장(Tehrir Defteri)을 보면, 이전에 없던 염색장, 도살장, 피혁장, 밀납공장에서 일하는 다수의 장인들이 거주했으며, 납세의 의무를 지는 남성 1,425명 중에 기독교도 528명과 유대인 230명처럼 외부인들도 상당수 있었다(TT 1066; 山口昭彦, 2000). 이후에도 외부인 정착은 계속되어,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전체 인구 중에 아시리아인, 유대인, 페르시아인의 비율이 30% 가까이 이르게 되었다(표 2). 처음에 사

36 19세기 중반에 조사된 'Emārār-e Abū al-Fataḥ Khān, 'Emārār-e Mīrzā Moḥammad Reẓā, Masjed-e Mīrzā 'Abbās, 'Emārār-e Moḥammd Khān, 'Emārār-e Sāg Vardī Khān 등은 대부분 카자르 왕조 시기에 건립된 건물이다. 솔레이만 한도 모스크와 마드라사 등을 건립했다고 전하지만, 당시에 건립된 건물이 온전하게 전하지는 않는다.

표 2 1851년 사난다즈의 인구 구성

구분	가구 수(비율)	인구 수(비율)
아시리아인	60 (2.8%)	300 (2.9%)
유대인	100 (4.7%)	600 (5.9%)
페르시아인	460 (21.7%)	1,840 (18.0%)
쿠르드인	1,500 (70.8%)	7,500 (73.2%)
합계	2,120 (100%)	10,24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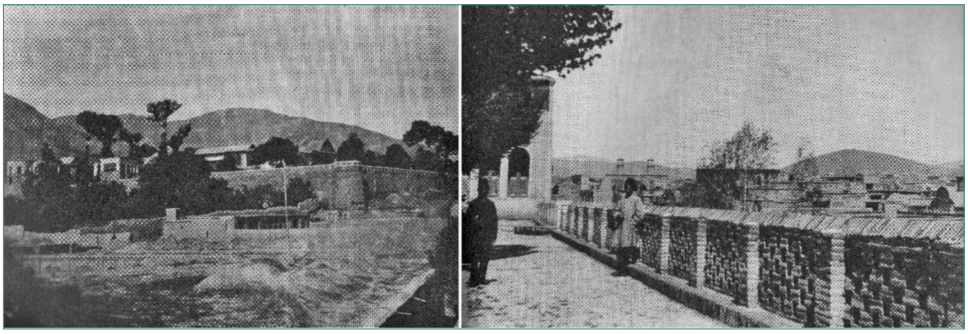
출처: Mehryar et al.(1999: 195) 참조.

난다즈는 아르달란 가문의 군주 일가와 구성원들의 거점 성채로 건설되었지만, 이후 외부와 접촉하는 빈도가 많아지며, 점차 쿠르드인과 외부인이 함께 생활하는 국제적인 도시로 변모했다.

2. 거점 산성의 파괴와 페르시아계 왕조의 정권 간섭

사난다즈 천도 이후, 솔레이만 한은 사피 1세가 향후 피난과 반란의 거점이 될 수 있는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성채를 파괴하라는 명에 따라 네 산성을 모두 파괴했다(Sharīf Qāẓī, 2000: 28; Khosrow, 1977: 31; Mastūre, 2013: 35; Mastūre, 2019: 125; Sanandajī, 1987: 122; Mardūkh, 2016: 304). 이렇게 타의적으로 산성을 포기한 이후, 아르달란 군주들은 산간 지형이 아니라, 평지성의 방어시설에 의지해 가문을 지켜야 했다. 물론 이곳에는 지휘부 성채와 방어 성채를 감싸는 두 겹의 성벽이 있었고(그림 11), 방어용 성벽에는 벽체를 타고 오르는 적군을 막기 위한 일정한 간격의 돌출부와 성벽 주변으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채운 해자도 설치했다. 하지만 사난다즈는 복잡한 동선을 만들어 적군의 성내 침입을 늦추는 성문, 성채에 오르지 못하게 저지하는 가파른 경사면, 원거리에서 적군을 공격할 수 있는 포대처럼 방어력을 배가할 수 있는 다른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 이런 사난다즈의 방어시설은 두 제국의 접경지에 있는 성채라고 하기에는 특별하지 않았고, 방어의 핵심인 성벽도 도시의 모스크, 관공서, 시장, 대상숙소 같은 주요시설과 거주 인구의 약 5/6 정도는 감싸지 못했다.

가문의 군주들도 사난다즈의 방어시설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 때문



출처: Moḥammadzāde(2015: 67; 66)

그림 11 1896~1899년 지휘부 성채의 성벽 외부와 내부

에, 그들은 전투가 시작하기도 전에 도망치는 경우가 많았다. 1722년에 아프간조가 사파비조의 수도를 함락시킨 상황을 틈타 오스만조와 바반의 하나 파샤(Khāna Pāshā, 1719~1723 CE 재임)가 사난다즈 정복을 시도했다. 당시 이 소식을 접한 아르달란의 알리 콜리 베이그('Alī Qolī Beīg, 1716~1719 CE 재임)는 맞설 생각도 하지 않고 몰락한 사파비조의 수도 이스파한으로 도망쳤다(Sharīf Qāẓī, 2000: 22). 하니 파샤에 이어 사난다즈를 관할한 바반의 알리 한('Alī Khān, 1723~1729 CE 재임)이 갑작스레 병사한 뒤에야, 후임 군주인 소브한 와르디 한(Sobhān Wardī Khān, 1734~1736 CE 재임)이 아프샤르조의 나디르 샤(Nāder Shāh Afshar, 1736~1746 CE 재임)를 앞세워 이곳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Sharīf Qāẓī, 2000: 45). 1750년에 잔드조의 카림 한(Karīm Khān Zand, 1751~1779 CE 재임)이 사난다즈에 도착했을 때도 이 가문의 하산 알리 한(Ḥassan 'Alī Khān, 1748~1752 CE 재임)은 이미 도망친 상태였다. 이후 그는 잔드조에 복속하고 나서야 복귀할 수 있었다. 이후 아프간조의 아자드 한(Āzād Khān Afghān, 1750~1758 CE 재임)과 오스만 술탄이 바반의 셀림 파샤(Selīm Pāshā)를 이곳에 파병했을 때도 하산 알리 한을 어렵지 않게 사로잡을 수 있었다(Sharīf Qāẓī, 2000: 56-58). 이렇듯 아르달란 군주의 활약상을 다소 과장했을 가문사가들의 저술에서도 승전기록을 찾을 수 없을 만큼 사난다즈는 빈약했다.

실제로도 사난다즈 천도는 독립성을 보유하던 아르달란 가문의 사파비조 복속을 의미했다. 이후부터 아르달란 군주들은 퇴위나, 후임 군주의 결정권을 사파비 왕에 넘겨야 했다(표 3). 그나마 사피 1세와 압바스 2세의 재임기에 군주가

표 3 아르달란 군주의 재임기간과 퇴위 사유

군주명	즉위	퇴위	기간	사파비 왕	퇴위 사유
솔레이만 한	1630	1656	26	압바스 2세	자연사
칼브 알리 한	1656	1671	15	솔레이만 1세 (1666~1694 CE 재임)	
한 아흐마드 한 2세	1671	1680	9		이스파한 궁정에서 해임 (이후 불명, 처형 등)
호스로우 한 1세	1680	1682	2		
테이무르 한	1682	1687	5		
한 아흐마드 한 2세	1687	1695	8	솔탄 호세인 (1694~1722 CE 재임)	
모함마드 한	1695	1701	6		
모함마드 한 조지아	1701	1704	3		
하산 알리 한	1704	1706	2		사냥터에서 의문사
호세인 알리 한	1706	1707	1		이스파한 궁정에서 해임 (이후 불명, 처형 등)
카이호스로 베이그	1707	1709	2		
압바스 콜리 한	1709	1715	6		
알리 콜리 베이그	1716	1719	3		바반 침공에 탈주 및 정권 포기

출처: Sanandajī(1996: 121-135) 참조

된 솔레이만 한과 칼브 알리 한은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리를 유지했지만, 사파비조의 솔레이만 1세와 솔탄 호세인이 재임하던 기간에 활동한 아르달란 군주들은 모두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그중에 대부분은 5년도 채우지 못했고, 호세인 알리 한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이스파한의 사파비 궁정으로 불려가 해임되었다. 그중에는 호스로우 한 1세(Khosrow Khān I)처럼 해임 이후 이스파한의 이맘광장[37]에서 처형되었거나(Sharīf Qāẓī, 2000: 32), 하산 알리 한처럼 사냥하러 사난다즈 밖을 나섰다가 피르오마르의 묘소(Boq'e-ye Pīr 'Omar)라는 곳에서 의문사한 것 외에(Sanandajī, 1987: 129-130), 나머지 군주들의 해임 이후 행적이 전하지 않는다. 가문사가들이 전하는 그들의 해임 사유가 대부분 악행, 괴롭힘, 탐욕, 반란처럼 부정적 사건과 연관된 것을 보면, 이스파한에 불려가 투옥, 혹은 처형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아르달란 가문의 독립성 상실은 사파비조 붕

37 압바스 1세 재임기에 건립된 궁정 내 광장이며, Meīdān-e Emām, Meīdān-e Naqsh-e Jahān, 혹은 Meīdān-e Shāhī 등으로 다르게 부른다.

괴 이후 아프샤르조(Afsharid, 1736~1796 CE), 잔드조(Zand, 1750~1794 CE), 카자르조(Qajar, 1794~1925 CE)로 이어진 페르시아계 왕조 시기에도 나아지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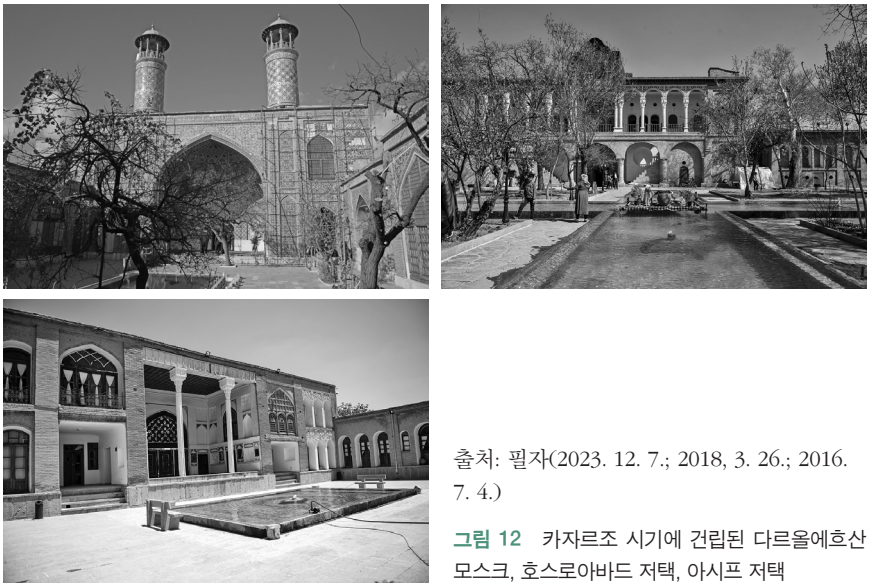
3. 사난다즈 가꾸기와 카자르조의 아마놀라 한 2세 해임

아르달란 군주들은 과거의 산성을 재건해 독립성을 되찾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18세기에 타의적으로 하사나바드를 재건했다가 다시 폐기한 경우가 유일하다. 당시는 잔드조의 셰이흐 알리 한(Sheīkh ʻAlī Khān)[38]과 카자르조의 모함마드 하산 한(Moḥammad Ḥassan Khān)[39]이 이스파한에서 하마단과 아제르바이잔을 향해 북쪽으로 진군하던 아프간조의 아자드 한과 전투를 준비하던 시기였다. 이미 잔드조에 복속한 아르달란의 호스로우 한 2세(Khusrow Khān II, 1756~1763, 1765~1789 CE 재임)도 전투 준비를 위해 하사나바드 성채를 재건하고 가문 구성원들도 이주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곳에서 잔드, 카자르, 아르달란 연합군이 12일 동안 아자드 한의 병력과 격돌한 끝에 승리를 거두었다. 이 전투가 끝나고 나서, 하사나바드는 카림 한의 명으로 다시 파괴되었고, 호스로우 한 2세는 사난다즈로 복귀해야 했다(Sharīf Qāẓī, 2000: 28). 이후부터 지금까지 아르달란 가문에서 과거의 거점 산성을 재건한 적이 없었다.

오히려 아르달란 가문의 군주들은 페르시아 왕실에 복속한 현실을 인정하고 제한된 지배권이나마 유지하기 위해 친정부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은 사난다즈를 번창한 페르시아 도시로 만들고자 노력했다. 1765년에 아자드 한과 전투를 마치고 이곳에 돌아온 호스로우 2세가 대표적이었다. 그는 도착하자마자 여러 전투로 허물어진 지휘부 성채(Qal'e-ye Dār al-Ayāle)와 도시 곳곳을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여기에 더해 그는 대형 살롱(ʻEamārāt-e Talār)을 지어 호스로위예(Khosrowīye)라는 이름을 붙였고, 전문적인 건축가(Mohandes)를 초빙해 공용욕실, 모스크, 차하르 정원의 공사를 맡기기도 했으며(Mardūkh, 2016: 326), 곳곳에는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석상(Mojasame)도 세워

38 잔드조의 창립자 카림 한의 사촌이다.

39 카자르조의 창립자 아가 모함마드 한(Āghā Moḥammad Khān)의 부친이다.



출처: 필자(2023. 12. 7.; 2018, 3. 26.; 2016. 7. 4.)

그림 12 카자르조 시기에 건립된 다르올에흐산 모스크, 호스로아바드 저택, 아시프 저택

자신의 위엄을 과시하고자 했다(Sanandajī, 1987: 153).

> 온 세상이 다른 빛깔을 얻었고, 그의 공정함으로 대지가 다른 색을 얻었네.
> 봄이 신선한 기쁨으로 새로워졌고, 많은 것들이 헤아릴 수 없는 큰 기쁨이 되었네.
>
> (Mardūkh, 2016: 342)

이후 사난다즈는 '위인(Bozorgī)'이라는 별칭으로 불리는 아마놀라 한 1세(Amān Allah Khān, 1799~1824 CE 재임)의 손을 거치며 다시 한번 일신했다. 1799년에 즉위한 그는 파트 알리 샤(Fatḥ-'Alī Shāh, 1797~1834 CE 재임)에게 수차례 선물을 보내고, 그의 장남 호스로우 한 3세(Khosrow III)와 공주 하산 자한 하놈(Ḥassan Jahān Khānom)을 혼인시키자고 제안할 만큼 친정부적인 태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군주였다(Rōḥānī, 1992: 268). 가문사가들이 그의 재임기에 사난다즈가 새로운 빛을 얻었다고 칭송하는 것은 아마놀라 한 1세가 이전의 어떤 군주보다 이곳에 많은 건물, 시설, 마을, 정원을 만든 건설왕이었기 때문이다(Mardūkh, 2016: 342). 그의 재임기를 포함해 카자르조 시기에 세워진 다르올에흐산 모스크(Masjed-e

출처: 이란지리정보국 소장, Alizadeh 제공.

그림 13 1957년 사난다즈 항공사진

Dār al-Esḥsān), 호스로아바드 저택('Emārāt-e Khasrowābād), 아시프 저택('Emārāt-e Āṣīf, 現 쿠르드주택박물관) 등이 지금도 사난다즈를 대표하는 건축 유산으로 전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Zarei, 2013b; 2014).

이렇게 카자르 왕실과 긴밀한 관계를 쌓으며 지배권을 유지하던 아르달란 군주들은 카자르의 나세르 앗 딘 샤(Nāṣer al-Dīn Shāh, 1848~1896 CE 재임)가 즉위한 뒤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 카자르조의 왕이 당시까지 세습 가문에 맡기던 지방 통치를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고자 단행한 행정개혁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1867년 아르달란의 아마놀라 한 2세(Amanollah Khān III, 1846~1848, 1860~1867 CE 재임)가 해임되었고, 그를 대신해 파르핫 미르자 모타마드 알 다울라(Farhād Mīrzā Mo'tamad al-Dawlā, 1818~1883 CE 생몰)라는 왕실 친인척이 관리자로 임명되었다(Mardūkh, 2016: 375). 이후부터 파르핫은 사난다즈와 아르달란 가문의 관할지에 있는 성채의 성벽을 모두 훼철했다(Kordestānī, 2005: 47). 이후 1928년에는 팔레비조가 정부군 주둔을 위해 지휘부 성채도 헐어내 버렸다(Mardūkh, 2016: 304), 이런 상황에서도 아르달란 가문은 사회· 문화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사들을 계속 배출했지만, 그중에 어느 누구도 통치권을 보유한 군주는 없었다. 이처럼 아르달란의 군주들이 타의적으로 산성을 포기한 이후 두 세기 정도가 지나고 나서 쿠르디스탄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배세력을 보유했던 전근대 지배가문의 시대도 막을 내렸다.

V. 결론

이 연구는 아르달란 가문의 역사적 활동을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산성의 점령 시기, 입지 조건, 방어시설 사용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시도였다. 이를 통해서, 아르달란 군주들이 산간지대에서 지배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확보한 네 산성의 입지 조건과 방어시설 사용의 특성을 살피고, 이 가문의 군주들이 오스만조와 사파비조 사이에서 생존을 모색하기 위해 다수의 산성을 활용한 방법과 산성을 포기한 뒤에 독립성을 상실한 배경을 확인했다.

아르달란 가문의 첫 군주는 아르달란이라는 인물이다. 그는 12~15세기에 몽골-투르크 제국들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정복 활동을 펼치던 시기에 혼란을 피해 디야르바크르와 모술 인근에서 샤흐리주르라는 산간지대로 이주한 난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아르달란은 집단 정체성이 다른 구란인들 사이에서 생활하고, 그와 후대 군주들은 지역을 선점하던 가문과 경쟁하며 지배세력을 구축해야 했다. 그와 가문의 초기 군주들은 팔란간, 잘름, 하사나바드, 마리반 성채를 차례대로 정복하며 가문의 거점으로 삼았다. 그중에 먼저 확보한 팔란간과 잘름 성채는 접근이 어렵고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계곡의 자연적인 성채였다. 두 산성은 산 정상에 위치하고 주변에 방어시설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성채는 아니었지만, 가문 내에서는 물리적 조건보다 통치 거점으로 사용한 장소성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 두 곳을 성채라고 불렀다. 이와 같은 인식은 지배권을 갖추기 시작한 가문 초기에 대규모 인원을 동원해 성채를 공사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성채 공사에 투입할 노동력을 확보한 아르달란 군주들은 하사나바드와 마리반 성채처럼 산 정상에 위치하고 성벽을 비롯한 인위적인 방어시설을 가진 보편적 언덕성채를 확보했다. 아르달란 군주들은 시기별 여건에 맞추어 다른 입지 조건과 방어시설을 사용하는 거점 성채를 추구했지만, 모두 험준한 산간 지형을 활용하는 난공불락의 요새라는 공통점을 가졌다. 이런 조건의 네 산성을 중심으로 아르달란의 초기 군주들이 주변 집단과 경쟁하면서도 지배가문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이후 16세기 초부터 확장하던 오스만조와 사파비조가 국경을 이루던 쿠르디스탄에서 충돌했다. 두 제국의 접경지역에서 성장한 쿠르드 가문들은 이웃한 가문과 경쟁하고, 혈족까지 죽이며 생존했다. 이 시기에 아르달란 군주들에게 거점 산성은 자신과 가문의 안위를 보존할 수 있는 전장이자 피난처로서, 그들은 하나의 고립된 산성이 아니라 다수의 산성을 이용했다. 마문 1세의 세 아들 비

케, 사르합, 모함마드의 재임기에 오스만군에 대응한 과정에서 산성의 선택 방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장남 비케의 아들 마문 2세는 샤흐리주르에서 오스만군의 공세를 견디지 못하고 잘름 성채로 거점을 옮겼으며, 이후에는 대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문의 관할지 너머에 위치한 기안 성채로 도주를 시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차남 사르합도 샤흐리주르에서 오스만 군대와 격돌한 뒤에 잘름 성채로 이동했으며, 이후 전투를 대비해 마리반 성채도 보강했다. 이 과정에서 그가 타흐마스브 1세와 동맹 유지에 노력한 이유는 마리반 성채가 함락되었을 때를 대비해, 최종적으로 피신할 장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처럼 두 군주는 상황이 좋지 않을 때마다 적군의 반대편에 있는 산성으로 옮겨 투쟁을 이어 갔다. 이후 16세기 후반 할로 한은 술탄이 수시로 바뀌던 오스만조와 형 테이무르 한을 살해한 사파비조에 가문의 운명을 맡기지 않고 독자노선을 추구했다. 이를 위해 그는 네 산성을 정비하고 공공시설을 세워 확보한 뒤에, 여러 성채를 함께 사용했다. 그는 겨울철 찬바람을 피할 수 있고 여름에 수원이 말라 생활할 수 없는 따뜻한 계곡성채와 겨울 동안 기온도 낮고 눈도 많이 내려 머무를 수 없는 서늘한 언덕성채의 입지 조건과 정세를 고려해 선택했다. 두 제국의 영토로 피난할 수 없던 그는 네 산성의 중앙 부근에 있는 하우라만 지역을 최종적 피난처로 구상했다. 이 험준한 산간은 역사적으로 여러 집단이 선택한 피난지이자 전장으로서, 할로 한은 팔란간 성채를 수도로 정하고 주변에 마을을 조성해 이곳으로 진입하는 통로를 확보하고자 했다. 이처럼 16세기 동안 아르달란 군주들은 오스만조와 사파비조 사이에서 새로운 왕조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두 제국의 공세를 견디며 끝까지 살아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는 가문을 유지하기 위해 산성을 옮겨 다니고 피난지를 구상했다.

1636년에는 솔레이만 한이 사피 1세의 명을 받고 산간을 떠나 평탄한 분지에 새로운 거점으로 사난다즈 성채를 건설했다. 이 평지성은 험준한 지형을 활용하는 요새가 아니라, 주변에서 접근하기 쉬운 도시였다. 처음에 사난다즈는 아르달란 가문의 군주 일가와 구성원들을 위한 성채로 건설되었지만, 점차 외부인들이 함께 거주하는 국제적인 교역도시로 성장했다. 천도 이후, 솔레이만 한은 사피 1세의 명에 따라 반란과 저항의 거점이 될 수 있는 네 산성을 모두 파괴했다. 이렇게 타의적으로 산성을 포기한 이후, 아르달란 군주들은 이곳의 성벽과 성문

에 의지해 가문을 지켜야 했다. 하지만 가문사들의 저술에서도 승전기록이 없을 만큼, 사난다즈의 방어시설은 빈약했다. 이런 평지성 천도는 독립성을 보유하던 아르달란 가문의 사파비조 복속을 의미했다. 실제로 사파비조와 이후 등장한 페르시아계 왕조 시기에 아르달란 군주들은 자치권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이 가문의 군주들은 과거의 거점 산성을 재건해 독립성을 되찾고자 시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페르시아 왕실에 복속한 현실을 인정하고 제한된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 친정부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이 그들은 평지성 사난다즈를 번창한 페르시아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아프간조의 아자든 한과 전투를 마치고 사난다즈에 돌아온 호스로우 2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대대적으로 성채를 정비하고 전문 건축가를 불러와 페르시아식 기념비 건축을 세운 것이었다. 이후 카자르조 시기에는 위인이라 불리는 아마놀라 한 1세가 어느 때보다 많은 건물을 세우기도 했다. 그의 재임기에 사난다즈가 새로운 빛을 얻었다는 칭송은 가문의 번성과 함께 독립성을 상실한 상황을 대변한다. 이렇게 유지되던 아르달란 가문은 1867년에 카자르조의 나세르 앗 딘 샤가 지방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개혁을 실시한 이후 몰락하기 시작했다. 당시 군주였던 아마놀라 한 2세가 해임된 이후, 더 이상 아르달란 가문에서 지배권을 가진 군주를 배출하지 못했다. 이후에는 성벽과 지휘부 성채처럼 가문을 상징하던 물리적인 흔적들도 훼철되었다. 이처럼 아르달란의 군주들이 산성을 포기하고 200여 년 정도가 지나고 나서 전근대에 가장 오래 지배권을 보유한 아르달란 가문의 시대도 끝이 났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아르달란 가문의 전근대 역사를 거점 산성 중심으로 세력의 구축, 유지, 상실기로 나누어 재편해 보았다. 하지만 이 가문의 세력권이 위치한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지역에서는 발굴조사가 자유롭지 않아 참조할 수 있는 보고자료가 충분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각 성채의 구조와 건축 특성을 면밀하게 살피지 못했으며, 이라크에 있는 관련 유적지는 국내 연구자가 합법적으로 방문할 수 없어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앞으로 현지 연구기관이나, 연구자와 협력관계를 구축해 연구를 보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아르달란의 역사가들이라고 부르는 가문사가들의 문헌을 주로 참고하여 내부자적 시각에 편중된 한계도 있다. 아르달란 가문을 상대한 전근대 제국들의 다양한 문헌이 파

편적으로 전할지라도 함께 검토해 중립적 입장에서 아르달란 가문사를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에 더해, 아르달란 가문은 다양한 지역에서 성장한 쿠르드 지배가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비틀리시가 술탄국, 독립가문, 자치부족으로 나눈 것 외에도 다양한 층위의 지배가문들이 전근대에 존재했다. 그들이 외부 제국에 저항과 복속하는 방법도 달랐을 것이다. 앞으로 전근대 쿠르드 지배가문의 역사적 활동과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문들의 역사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이다.

투고일: 2024년 2월 15일 | 심사일: 2024년 3월 7일 | 게재확정일: 2024년 3월 28일

참고문헌

라시드 앗 딘 저. 김호동 역. 2018.『라시드 앗 딘의 집사4: 일 칸들의 역사』. 파주: 사계절.

이주연. 2020. “티무르朝 史書, 야즈디 撰『勝戰記』(Ẓafar-nāma)의 譯註.”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최남섭. 2019. “반유목 하우람인의 임시 거주지와 고정 건축.”『중앙아시아연구』24(1): 153-181.

_____. 2022. “쿠르드인의 검은 천막과 돌 건축.”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최남섭·전봉희. 2021. “이란 하우라만 지역의 돌 벽체 건축과 지붕형식.”『대한건축학회 논문집』37(3): 121-132.

山口昭彦. 2000. “オスマン検地帳に見る18世紀初頭イランの地方社会(1)イラン西部アルダラーン地方の農村と遊牧民社会.” 東洋文化研究所紀要 140券. 12月: 211-267.

山口昭彦. 2021. “山城から平城へ: 近世クルディスタンにおける都市機能の変容).” 守川知子 編. 都市からひもとく西アジア: 歴史·社会·文化. 150-167. 東京: 勉誠出版.

Aḥmad, Moṣṭafā Ḥanīf. 2017. “Mashrū’ Tūthīq-i Madīnah Qālājūwālān al-Ātharīyah.” *Bābān* No. 23, 76-78, Baban Cultural & Social Center.

Alizadeh, H. 2004. “The Kurdish City of Sanandaj: An Analysis of Iit’s Formation and Historical Development until 1930.” *Journal of Kurdish Studies* l: 1-35.

_____. 2005. “The Design Principles of Traditional Urban Cores in Iran : a Case

Study of Qatâr-chyân Quarter, Sanandaj." Ph. D. Diss., Newcastle University.

_____. 2021. *Building a Traditional Kurdish City: The Urban Morphology of Sanadaj*. Singapore: Palgrave.

Edmonds, C. J. 1957. "Shar Bazhêr and the Basin of the Qalachuwalan." *The Geographical Journal* 123(3): 318-328.

Eyice, S. 1988. "Kale." Ayhan, Halis ed. *İslâm Ansiklopedisi* Vol 24, 845-866. Turkiye Diyanet Vakfi

Karīmīān, Ḥassan and Ma'ṣūmīān, Moḥammad. 2017 "Faṣl-e Avval Kāūsh-e Qal' e-ye Īmām- Marīvanm." *Proceedings of the 15th Annual Symposium on the Iranian Archaeology*. Tehran: Pezhūheshkade-ye Mīrāth-e Farhangī va Gardeshgarī. March.

Ma'ṣūmīān, Moḥammad. 2016. "Kashg-e Baqāyā-ye marbūṭ be Hezāre-ye Avval qabl az mīllādī dar Qal'e-ye Īmām-e Marīvan" https://www.irna.ir/news/82085861/ كشف-بقاياي-مربوط-به-هزاره-اول-قبل-از-ميلاد-در-قلعه-امام-مريوان (검색일: 2024. 2. 13.).

MCTH of Kordestan Province(Sāzmān-e Modīrīyat va Barnāmerīzī-ye Ostān-e Kordestān). 2005. *Naqshe-ye Shahrestān-e Sanandaj*. Sanandaj: Sāzmān-e Modīrīyat va Barnāmerīzī-ye Ostān-e Kordestān.

Moḥammadzāde, A. 2015. *Az Dār al-Khalāfe tā Kordestān*. Tehran: Aūḥadī.

Rōḥānī, Bābā Mardūkh. 1992. *Tārīkh-e Mashāhīr-e Kord*, Vol. 3. Tehran: Soroush Press.

Solṭānī, 'Alī-Moḥammad. 1992. *Īllāt va Ṭavāyef-e Kermānshāh: Ūrāmān*. Tehran: Farhangī-ye Nashr-e Sohā.

Zaki, Muhammad A. 1996. "A Brief History of Kurds and Kurdistan, Part 1: From the Advent of Islam to AD 1750." N. Sharif Eng. tr.,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urdish Studies* 10(1/2): 105-155.

Zarei, M. E. 2007. *Sīmā-ye Mīrāth Farhangī, Ṣanāī'-ye Dastī va Gardeshgarī-ye Kordestān*. Sanandaj: Sāzmān-e Mīrāth Farhangī, Ṣanāī'-ye Dastī va Gardeshgarī-ye Ostān-e Kordestān.

_____. 2013a. "Barresī-ye Sākhtār-e Me'mārī-ye Dezhshahr yā Qal'e-ye Ḥassainābād." Miṭalle'āt-e Bāstānshenāsī 5(1): Spring and Summer. 49-68.

_____. 2013b. *Āthār-e Farhangī, Bāstānī va Tārīkhī-ye Ostān-e Kordestān*. Tehran:

Sobḥān-e Nūr.

_____. 2014. *Khānehā-ye Qadīmī-ye Sanandaj*. Sanandaj: Dāneshgāh-e Kordestān.

〈1차 자료〉

이란지리정보국. 1957. "사난다즈 항공사진."(H. Alizadeh 제공)

Devlet Arşivleri Başkanlıgı. *TT1066*. Osmanlı Arsivi (BOA).

Bitlīsī, Sharaf al-Dīn. 1998[1862]. *Sharaf-nāme*. Veliasminof-Zernov, V. ed., St. Petersbourg: Commissionnaires de I'Academie Imperiale des Sciences (reissue 1998. Tehran: Asāṭīr).

Chelebi, Evliya. Willem Floor Eng. Tr. 2010. *Travels in Iran & the Caucasus in 1647 & 1655*. Washington: Mage.

Dāyere-ye Joqhrāfīāī-ye Setād-e Artesh. 1943. *Naqshe-ye Pāwa(?)*. No. ?-?-?, Tehran, Chāpkhāne-ye Artesh.

_____. ?(drawn in 1942/3). *Naqshe-ye Palangān(?)*. No. ?-?-?, Tehran, Chāpkhāne-ye Artesh.

_____. 1946/7. *Naqshe-ye Jawānrūd(?)*. No. ?-?-?, Tehran, Chāpkhāne-ye Artesh.

_____. 1943/4. *Naqshe-ye Rawānsar(?)*. No. ?-?-?, Tehran, Chāpkhāne-ye Artesh.

Devlet Arşivleri Başkanlıgı. *TT1066*. Osmanlı Arsivi (BOA).

Frame, G. 1999[1968]. "The Inscription of Sargon II or Tangi Var (Tab. IXVIII)." Orientalia 68(1), (reissue 1999), 31-57.

Hawrāmī, Moẓafar Bahman Soltān. 2007. *Tārīkh-e Hawrāmān*. Sardashti, Nader Karimian ed., Tehran: Nashr Ehsan.

Khosrow (Ardalān, Khosrow ibn Moḥammad). 1977. *Lob-e Tavārīkh "Tārīkh-e Ardalān*. Tehran: Kānūn-e Khānevādegī.

Kordestānī, 'Alī Akbar Vaqāye'negār. 2001. *'Ashāyer va Īllāt va Ṭavāyef-e Kord*. Tavakolī, M. R. ed., Tehran: Tavakoli Publication.

_____. 2005. *Ḥadīqe-ye Nāṣrīye va Merāt al-Ẓafar dar Joghrāfīā va Tārīkh-e Kordestān*. Tavakolī, M. R. ed., Tehran: Tavakoli Publication.

Mardūkh, Moḥammad. 2016. *Tārīkh-e Kord va Kordestān*. Sanandaj, Shūwān.

Mastūre Ardalān. 2013. *Tārīkh-e Kordhā-ye Ardalān*. Sīamand Khallīlī, ed. Sanandaj: Kurdistan Publication.

_____. 2019. *Tārīkh-e Ardalān*. Manṣūr Ardalan, ed. Sanandaj: Rūzh.

Mehryar, M., Fatullayev, Sh. S., Tehrani, F. F. and Qadiri, B. 1999. *Aṣād-e Taṣvīrī-ye Shahrhā-ye Īrānī-ye Doure-ye Qajār*. Tehran: Dāneshgāh-e Shahīd-e Beheshtī.

Sanandajī, Mīrzā Shokrollah. 1987. *Toḥfe-ye Nāṣerī dar Tārīkh va Joghrāfīyā-ye Kordestān*. Tehran: Amīr Kabīr.

Schmidt, Erich F. 1940. *Flights over Ancient Cities of Iran*. Chicago and Illinois: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Tavernier, Jean-Baptiste. 1676. *Les Six Voyages de Jean Bapt*. Tavernier. Utrecht: Guillaume.

Sharīf Qāẓī, Moḥammad. 2000. *Zobde-ye al-Tawārīkh-e Sanandajī*. Tavākolī, M. R. ed. Tehran: Tavakoli.

Qazvīnī, Moḥammad Ṭāher Ḥosseīn Vahīd. 2005. *Tārīkh-e Jahān-Arā-ye ʿAbbāsī*. Sādeq, Sa'īd Mīr Moḥammad ed. Tehran: Pazhūheshgāh-e ʿOlūm-e Ensānī va Motāle'at-e Farhangī, 2005.

Yazdī, Sharaf al-Dīn 'Alī. *Ẓafar-nāme*. (Yazdī, Sharaf al-Dīn 'Alī. 2008/9. Ẓafar-nāme-ye Sharaf al-Dīn ʿAlī Yazdī. Ṣādiq, Sayyīd S'aīd Mīr Muḥammad, ed. Tehran: Markaz-e Asnād Majles).

아시아리뷰 제14권 제1호(통권 30호), 2024

Abstract

Kurdish Principal Family and Mountainous *Qal'e*: Re-frame of the Ardalan Family's Premodern History

Namsub Choi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s to re-frame the premodern history of the Ardalan family, focusing on their mountainous fortresses (Qal'es). The Kurdish principal families in the Zagros and Taurus Mountains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history, engaging with various Muslim empires from their fortified Qal'es which served as political and military centers. However, due to the families rarely compile their own chronicles, much of their premodern history can only be understood through fragmentary records left behind by outsiders. This research delves into the exceptionally rich literary sources of the Ardalan family among Kurdish principal families, delineating their history into three distinct phases: the establishment, maintenance, and loss of ruling power. It analyzes the strategic acquisition, utilization, and eventual abandonment of their Qal'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four Qal'es located in valleys (Palangan and Zalm) and hills (Hassanabad and Marivan) during the 13th to 15th centuries. Moreover, the study examines how Ardalan chieftains strategically employed the Qal'es to navigate the intense competition between the Ottomans and Safavids in the 16th century, elucidating their survival tactics and geopolitical significance. Additionally, it investigates the decline of the family, marked by the deliberate destruction of all four Qal'es between the 17th and 19th centuries, culminating in their eventual subjugation to the Khazar royal court. Through this

comprehensive analysis, the study sheds light on the historical dynamics of resistance and submission of Kurdish principal families to premodern empires.

Keywords | Kurdish Principal Family, Ardalan Family, Mountainous *Qal'e*, Location Conditions and Order of Conquest, Strategic Selection and Survival, Abandonment and Loss of Autonomy